

교회갱신을 위한 성경적인 관계기도에 대한 연구

회경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기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7년 5월

Copyright © 2017 Kiwan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Biblical Relationship Prayer for Church Renewal: A Case of Hwikyung Church in Seoul, Korea

Kiwan Kim

Hwikyung Church, Seoul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al challenge of the church community that I have serve. The crisis and decline of churches in Europe over the past 1000 years have been an avoidable reality. The same worries and concern are coming to Korean churches that have been in existence for over 130 years. Also, the church I have serve has been experiencing a decline in the number of members and a spiritual stagnation of faith as all of their early life and vision have taken away for the half-century years. To make matters worse, it is also experiencing social tyranny and internal conflicts. At this time, I noticed one of the clues of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in prayer during various church activities to restore the relationship with God.

I have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that summarizes and analyzes related literature for a series of studies on prayer. First, I have examined the nature of the Biblical church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church renewal. In order to find the essence of prayer, I have tried to identify the etymology, types, and forms of biblical prayer, to present biblical and theological grounds and to help understand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named Relation Prayer, which was intended to highlight the original purpose of prayer for the purpose of creating, sustaining and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God. Relationship prayer is summarized as follows.

Relation Prayer is not a prayer centered on a “need” but a “meeting” centered prayer. Relational prayer is not a prayer centered on “me”, but a prayer centered on “making a relationship”. Relation Prayer is not a prayer centered on “gaining”, but a

“intimacy” centered prayer. Relation prayer is not “accomplished” centered prayer but “pleasure” centered prayer.

Based on this, I developed a relationship prayer training program, analyzed and evaluated the understanding of prayer through questionnaires, and conducted seminars, prayer education, prayer meetings, and prayer meetings, after training respectively. As a result, relationship prayer helped prayer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restoring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renewing prayer with God-centered prayer from prayer-centered prayer, And the church community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expectation and enthusiasm of prayer. We have confirmed that God is living and working and this study is an effective tool for personal renewal, the renewal of the faith of church community, and the revival of the church.

국문초록

교회갱신을 위한 성경적인 관계기도에 대한 연구
휘경교회를 중심으로

김기완

휘경교회, 서울

본 논문은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 1000년을 넘긴 서구 유럽 교회들의 위기와 쇠퇴는 130년의 역사를 갖 지난 한국 교회들에게도 같은 고민과 우려를 낳고 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 역시, 반 백년의 세월이 초기의 생동감과 비전을 다 빼앗아 간 듯 교인들의 수적 감소와 영적인 신앙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사회적 질타와 내부적 갈등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본인은 본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신앙 활동 중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위하여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교회 갱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찾기 위해 성경적인 기도의 어원과 종류와 형태를 파악하여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물을 “관계기도”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기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관계기도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기도란 ‘간구’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만남’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란 ‘언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알아감’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란 ‘성취’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누림’ 중심의 기도이다.

본인은 이를 토대로 관계기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이해를 분석 평가하고 세미나와 기도교육 그리고 기도회 및 기도모임 등 진행하여 교육하고 훈련한 후 다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관계기도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기도자’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기도를 갱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교회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었고, 교회공동체가 기도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개인적인 갱신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갱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연구 방법과 범위.....	4
II. 교회에 대한 이해.....	8
교회의 어원적 이해.....	8
교회의 성경적 이해	12
교회에 대한 시대적 요청.....	23
III. 교회 갱신의 의미와 필요성.....	36
교회 갱신의 의미.....	36
교회 갱신의 필요성.....	40
IV. 관계기도에 대한 성경적 기반	47
구약의 기도에 대한 정의.....	47
신약의 기도에 대한 정의.....	53
성경에 나타난 관계 기도 유형.....	58
V. 관계기도에 대한 신학적 기반.....	69
기독교 역사 속에 사용되었던 관계기도 유형.....	69
기도에 관한 신학적 이해	75
관계기도의 정의	88

VI.교회갱신을 위한 성경적인 관계기도의 지향점과 실제.....	96
관계기도는 ‘간구’ 중심기도가 아니라 ‘만남’ 중심의 기도이다.....	96
관계기도는 ‘나’ 중심기도가 아니라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이다.....	100
관계기도는 ‘언음’ 중심기도가 아니라 ‘알아감’ 중심의 기도이다.....	108
관계기도는 ‘성취’ 중심기도가 아니라 ‘누림’ 중심의 기도이다.....	114
VII.교회갱신을 위한 관계기도 프로그램.....	121
관계기도에 따른 기도 사역에 대한 반응 및 평가.....	121
종합 평가	141
VIII.결론.....	149
요약 및 평가.....	149
제언.....	152
부록	156
참고문헌	171

표목차

<표1>자기중심적 기도.....	111
<표2>관계기도.....	112
<표3>알아가는 기도 vs 얻어가는 기도.....	117
<표4>1. 신앙기간.....	46
<표5>2. 하루 기도하는 시간	48
<표6>3. 전체 기도 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	49
<표7>4. 전체 기도 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	50
<표8>5. 전체 기도 시간 중 소원과 간구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	51
<표9>6. 기도의 주된 내용.....	62
<표10>7. 기도가 응답받지 못 하는 이유	63
<표11>8. 내가 생각하는 기도	63
<표12>9. 기도할 때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68
<표13>10.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71

감사의 글

“ReChurch” , 김영래 교수님과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는 드루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하며 내내 들었던 생각이 “Re---” “다시 시작해야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이 순간도 가슴이 많이 아파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오직 선교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행복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부러워하려고 합니다. 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RePray” 지난 방황의 시간 동안 저를 놓지 않고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부모님의 옆모습에서 보았던 기도하는 삶, 그 기도가 이제는 제 고난의 시기에 유일한 소망의 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날 용서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가슴 아파 눈을 감는 제게 “사랑한다” , “내가 너와 함께 하마” , “힘내라” 말씀하시며 눈물 닦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은혜 보답하리요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감사하리요... 많이도 붙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경하는 지도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교수님, 함께 공부하던 그 자리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학위를 마칩니다. 김영래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름 오랜 인연이 있는 조병호 박사님, 초지일관 달려온 그 인생을 존경합니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박사님, 배울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같이 꿈꿀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라는 먼 길을 오가며 함께 공부했던 심양섭 목사님, 송지훈 목사님, 윤대원 목사님과 캐나다에 계신 정요셉 목사님, 드루 D.Min. 2기의 목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함께 하지는 못 했지만 여러모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짧지않은 목회학박사 과정 동안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휘경교회 교우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은 교회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교우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을 위해서 늦은 밤,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다 새우잠을 주무시고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김상하 장로님, 어머니 신영길 권사님, 두 분의 기도는 부족한 제가 좌절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제게 언제나 용기를 주는 동생들 내외와 누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일산에 계신 장모 김향숙 권사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많은 빛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아빠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시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너 알고 있지? 아빠가 힘들 때, 너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끝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모로, 아이의 엄마로, 부족한 남편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늘 용기를 준 아내 남윤희의 따뜻한 사랑을 잊지 못 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부족한 종에게 소중한 기억과 도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2017년 5월에

김기완

제 I 장

서 론

연구의 의의와 목적

2009년 미국 기독교 세계에 큰 쟁점이 된 중요한 선언이 있었다. ‘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 선언’ (A Jesus Manifesto for the 21st Century Church)이 그것이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과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 두 사람이 만든 이 선언은 이 시대의 신학과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다음은 선언문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¹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독교는 이념이 아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다. 기독교는 한 개인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참됨, 선함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성경의 공동체는 그 개인에게 연결된 곳에서 세워지고 발견된다. 회심은 방향의 전환 그 이상으로 관계의 변화이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고대 히브리어 슈브(shubh) 또는 아람어 동의어에서 ‘회심’ 에로의 부름은 하나님을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중심에 계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속에서 엄청난 단절을 감지한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예수 결핍장애(JDD: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믿는다.²

그리스도의 ‘목적’ 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혼동할 수 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핵심

¹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10), 80.

² Ibid., 81.

가치” 라고 뜻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다. 그는 알려지고, 사랑 받으며, 경험되고, 경외 받으시며, 구현되시는 실재하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의 목적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의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혀 기뻐 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에 반하여 예수를 섬기는 ‘신’ 으로 섬기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로, 모든 관계의 하나님으로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끈다.³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노트를 남겨 놓으시지 않으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숨결과 몸을 남겨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일관되고 분명한 신앙체계를 남겨 놓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루만질 상처와 치유의 손길을 남기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적 신앙이나 ‘기독교적 세계관’ 을 남겨 놓지 않으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관계적 신앙을 남기신다.⁴

근래 한국교회는 정체기를 넘어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말을 듣고 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회는 외형적 감소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에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 질타와 교회 내부적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촉구하는 ‘예수 선언’ (Jesus Manifesto)은 신앙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그의 책 ‘기도’ 에서 우리에게 질문한다. “기도란 만남인가 아니면 간구인가” 그는 만남과 간구는 상반된 것이 아니며 별도의 범주도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함을 강조한다.⁵

³ Ibid., 84.

⁴ Ibid., 85.

⁵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서원, 2016), 17-20.

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소원과 간구에 치중한 기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발전시키는 본질적인 면을 잃어버린 기도라는 반증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전술한 ‘예수선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관계성 회복은 상실한 것을 되찾아야 하는 본질적인 일이며,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신앙 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인 기도에 대한 고찰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공동체와 성도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D.A. Carson은 그의 저서 ‘바울의 기도’에서 “그 무엇보다도 다르게 기도는 인간을 평가하는 영적 척도이며,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우리가 평생 직면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⁶ 라고 J. I. Packer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처럼 기도를 무시하면 서구 교회는 닥쳐오는 다른 도전들에 더 이상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한다. 이는 재복음화를 요청할 지경에 이른 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시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볼 때, 기도에 대한 숙고와 재발견은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힘 있게 하며,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연구과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부각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도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려한다. 이에 성경에서 말하는

⁶ D. A. Carson, *바울의 기도*, 윤종석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16.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교회를 향한 시대의 도전적 요청을 숙고하여 지금의 기도현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 형태를 모색함으로써 개인적인 신앙갱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갱신과 나아가 신앙부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 1000년을 넘긴 서구 유럽 교회들의 위기와 쇠퇴는 100년의 역사를 갖 지난 한국교회들에게도 같은 고민과 우려를 낳고 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 역시, 반백년의 세월이 초기의 생동감과 소망을 다 빼앗아 간 듯 교인들의 수적 감소와 영적인 신앙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본인은 본 교회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기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인 성경적 관계기도가 이 시대의 격랑(激浪)에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데 일조(一助)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본 논문의 제 1 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서술할 것이다.

본론, 제 2 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교회의 어원적 이해를 고찰하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교회의 이미지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증거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고 거기에 나타나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성을 추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포스트모던 사회에 접어들면서 현재 교회에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을 전제로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이 주장하는 EPIC 교회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느껴지는 교회(Experiential Church),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회(Participatory Church), 이미지와 은유로 사고하는 교회(Image-driven Church),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Connected Church)를 차례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Leonard Sweet의 저서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를 주로 참고하고자 한다.⁷ 이 작업은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관계성 회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교회 갱신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먼저 교회 갱신의 의미를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갱신의 의미를 찾아보고 교회 갱신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제 2 장에서 언급된 교회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따른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교회이해를 중심으로 교회갱신을 위한 도구로써의 기도가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기도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도출함으로써 관계기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관계기도에 대한 성경적 기반을 확인하고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어원을 분석하고, 구약성경에는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어원을 분석보고, 신약성경에는 기도가 나타나는 기도들을 큰 틀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성경과

⁷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Nashville: Broddman & Holman Publisher, 2000).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기도들을 소개함으로써 관계기도의 성경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제 4 장에서 마련한 관계기도의 성경적 기반을 바탕으로 관계기도의 신학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관계기도에 대한 성경 텍스트 중심의 지지기반을 넘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관계기도들을 찾아보고 앞에서 논의했던 제 2, 3 장의 교회에 대한 전통적, 미래적 이해를 근거로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을 확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기도의 유형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신학자들의 기도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 논문의 주제인 관계기도의 정의를 조심스럽게 내려 보고자 한다.

제 6 장에서는 제 5 장에서 정리한 관계기도의 정의를 따라 교회갱신을 위한 성경적인 관계기도의 구체적인 지향점과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관계기도는 ‘간구’ 중심기도가 아니라 ‘만남’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관계기도는 ‘나’ 중심기도가 아니라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셋째로 관계기도는 ‘얻음’ 중심기도가 아니라 ‘알아감’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관계기도는 ‘성취’ 중심기도가 아니라 ‘누림’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제 7 장에서는 제 2 장에서부터 제 5 장까지의 논의의 결과로 도출된 제 6장의 관계기도를 교회현장에 설교와 세미나와 모임을 통해 교육하고, 교회갱신을 위한 성경적인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적용한 기도사역을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반응들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 8 장은 그동안 논의해 온 제 1 장 ~ 제 7 장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론으로 전체적인 요약과 평가를 기술함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한계는 아래와 같다.

본 논문은 기도를 통한 교회갱신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단순히 다양한 기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방법론을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기도의 본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인은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기도의 형태는 잃어버렸기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기도의 핵심이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요청 받고 있는 본질 가운데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기도의 모태인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기도의 본 모습을 찾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도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논문의 결과물인 관계기도는 부족한 지면과 연구의 목적상 언급하지 못 하였으나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폭넓고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있는 특정의 한 지역교회라는 분명한 테두리를 지닌 채 연구되었음을 고지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범위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데, 그것은 본 교회에 대한 사례연구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교회 여러 곳에 유용하고도 적절한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제 II 장

교회에 대한 이해

작금의 교회는 위기에 처해있다. 수적 감소는 물론이고 세상으로부터의 불신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갱신의 요청은 내적 요구일 뿐 아니라 외적 요구이기도 하다. 세속화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고, 시대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직화되다 못해 경직되어 버린 교회를 초대교회의 원초적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곳저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갱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회의 어원적 이해

성경에서 교회(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살전 1:1)에서였다고 알려지고 있다.¹

‘에클레시아’란 희랍어 ‘칼레오’에서 왔으며 이는 선출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본래 유대인들이 잘 쓰던 모임 내지는 공동체에 대한 단어가

‘쉬나고게’라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다. 또한 선교적인 입장에서든 당시

¹ E. 제이,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4.

회랍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에클레시아’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들을 기독교 신앙집단으로 인도하는 데에 유리했다는 것이다.²

즉 교회는 기독교 시대에 들어와서 형성된 기독 공동체에 대한 명칭으로 신약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어원적인 의미(헬리어 ‘에클레시아’ = ekklesia)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신앙공동체로서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만드신 것임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시대 이후로 얘기되는 일반적인 교회 개념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과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직접 만드신 이스라엘 민족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³

그렇다면, 구약성서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다. 단지 주전 3세기경에 구약성경을 헬리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의하면 ‘에클레시아’로 번역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 개의 히브리 낱말이 있을 뿐인데 ‘카할(qahal)’과 ‘에다(edhah)’ 및 ‘암(am)’ 등이 그에 해당한다.⁴

구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용어 ‘카할’은 ‘부른다’는 어근을

²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93), 146-47.

³ 강성열,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13.

⁴ Ibid., 14.

가지고 있고, “에다는 ‘지명하다’, ‘택한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⁵ 하지만 이 용어가 처음부터 공동체를 부르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카할’이라는 낱말은 구약성경에 모두 123회나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낱말은 70인 역에서 102회 정도가 ‘에클레시아’로 번역되고 나머지는 ‘쉬나고게’ (회당), ‘오클로스’ (민중) 등으로 번역되지만, 본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정들로서 전쟁에 소집된 무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임이나 집회 또는 거기에 모인 무리’라는 의미가 이 낱말의 일반적인 용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⁶

반면 구약성경에 147회나 사용되는 ‘에다’는 70인 역에서 거의 대부분 ‘쉬나고게’로 번역되는 것으로 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제의공동체로 나타나며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의 내적인 의미보다는 그 공동체의 조직 건물 규정 등의 외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낱말이 오경에만 무려 123회가 사용되고, 특히 광야교회에 관해 기록하는 민수기에 81회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카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⁷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유대인들을 독특히 종교적 공동체로 부르기 위해 어떤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전혀 없었다. 이스라엘이란 명칭 자체는 종교적 명칭으로서 주로 언약한 백성을 의미했으며 결코 국민 또는 민족적 그룹을 의미하지 않았다. 국가가 파멸되고 또 많은 유대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면서부터 히브리 용어인 ‘카할’이 종교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고

⁵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19.

⁶ 강성열, *교회란 무엇인가*, 15.

⁷ *Ibid.*, 15-16.

특별히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인 유대인의 성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⁸

즉 ‘카할’은 단순히 유대인이나 유대 사회와는 구별되게 계약에 충실한 백성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말로 정착된다. 이러한 ‘카할’의 언어적 특성은 자연히 ‘남은 자’ 사상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끈다. 왜냐하면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배반과 타락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얻은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보호되고 남겨져 하나님께 그들을 중심으로 의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역경을 무릎 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남은 자로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⁹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결국 의식적으로 그들 자신을 히브리적 유산과 관련시키면서도 유대적 예배 공동체들과 구분하여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유대적 예배 공동체는 ‘에다’란 말을 제한시켜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와 건물을 의미하도록 하여 ‘쉬나고게’로 사용하였다.¹⁰

결국, 교회를 표현함에 있어서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쉬나고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⁸ 부루스 라이츠만, *교회의 의미와 사명*,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1), 13.

⁹ 이종성, *교회론*, 305.

¹⁰ 라이츠만, *교회의 의미와 사명*, 14.

공동체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적 의미를 담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성경적 이해

앞에서 서술한 교회의 어원적 이해를 통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교회 ‘에클레시아’ 라는 용어의 사용은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회당 ‘쉬나고게’와 구별하고, 선교적 차원에서 당시 회랍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에클레시아’를 사용하여 그들을 보다 쉽게 교회공동체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을 강조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신약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성경적 이해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기도를 통한 교회갱신과 관련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예배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유대인들의 모임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와 예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 중의 최우선적인 것인 예배이다. 그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설정해야 할 까닭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부름 받은 무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적인 응답을 보내고 있기에 그러하다.¹¹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의 지침 중 하나였던 스위스 신앙고백에 나오는 말을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써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동참자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배하는 공동체’ 의 개념은 개혁가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표현되고 있다.¹²

“예배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폴 훈(Paul Hoon)은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 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에 대한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에 있다.

에빌린 언더힐(Evelyn Underhill)은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던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프랭클린 지글러(Franklin Segler)는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어린

¹¹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25-26.

¹² Ibid.

응답”이라고 말한다.¹³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예배란 교회의 고차원적인 응답이며 그 존재의 궁극적인 터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⁴

요약컨대,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교회는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를 교환하며 그 관계를 세우고 확인하고 맺어가는 모임의 터전이 교회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바울의 교회관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살전 1:1)’, ‘그리스도와 함께(롬6:1-11)’,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갈3:27)’, ‘그리스도의 지체(고전 6:15)’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일치(고전 12:12-27)’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많은 지체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전 12:13) 이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임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교회의 본질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몸과 머리의 비유로 들었다.¹⁵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주의 만찬에 관한 설명에서 떡을 떼어먹고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시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⁶

또한 에베소서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비유하여

¹³ 호남신학대학교 편,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51.

¹⁴ 정장복, *예배학 개론*, 26.

¹⁵ 이종성, *교회론*, 49.

¹⁶ *Ibid.*, 49-50.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 특히 4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성장케 한다는 동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관을 통해 볼 때 새롭게 선택되어 삶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앙과 인식과 사랑의 내적 성장과 새로운 지체들의 선교를 통한 외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¹⁷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¹⁸ 이 몸은 사람들을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맺어주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생명과 의의 공동체로 연결시킨다. 교회는 결코 하나의 기구로서 파악되지 않고 살아 있는 유기체적인 인격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정초되는 공동적 삶으로서 파악된다.¹⁹

즉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는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으며, 몸의 각 지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유기적 관계, 생명적 관계에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룩한 관계성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종성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서도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¹⁷ 한스 쾅,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1), 7.

¹⁸ Ibid., 63.

¹⁹ 김영한, *바르트에서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98.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중요한 것은 그 지체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이지 ‘몸의 그리스도’ 가 아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과 의지를 부여하며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지체를 연합시킨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이란 개념을 더 확대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아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 연결시키는 도식이다”.²⁰

즉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여, 교회의 지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를 우상화하는 죄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체가 머리에서 공급되는 호르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머리에서 보내지는 신경신호를 통하여 지시와 명령을 받고 기동하듯이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모든 것이 공급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기도에 있어서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생명력이 넘치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신약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²¹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백성이 예배하게 하며 신학을 가지게 하고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²⁰ 이종성, *교회론*, 53.

²¹ 이신전,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성장,” *목회와 신학* 제7호 (1990. 1): 44-48.

영적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²²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이루는 행위 안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이러한 구약에서의 백성의 개념은 종말론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까지 지칭하고 있다.²³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약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마 1:2, 눅 1:17,68,77, 2:10). 신약 전체를 통해서 교회는 구약에서의 백성과 연관을 가진 말로써 지칭되고 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참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위를 이룰 자’, ‘남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도 이스라엘 생활과 종종 비교되어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하여 ‘약속의 땅’ 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백성 곧 독특한 임무와 주체성을 가진 새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도 추종자들을 “새 이스라엘” 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의도적으로 열두 제자를 택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고 모세의 언약과 율법을 토대로 새 계명을 주었다.²⁴

이러한 의도는 예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낡은 율법시대는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었다. 이들은 새 시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새 공동체가 곧 새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다. 새

²² R. E. 웨버, *복음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50.

²³ Ibid., 51.

²⁴ 라이츠만, *교회의 의미와 사명*, 55.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곧 새 이스라엘이다.²⁵ 새 이스라엘은 외면적 유대인이 아닌 내면적 유대인으로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따라서 할례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된다.²⁶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고 부탁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룩한 자들,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다.²⁷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던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롭고 거룩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거 공동체

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와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²⁵ 이종성, *교회론*, 56.

²⁶ G. E. 래드, *신약신학*, 신성중,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604.

²⁷ 김창인, *성서연구 중심의 소그룹 형성을 통한 교회조직 갱신에 관한 연구* (미간행목회학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7), 8.

교회는 땅의 모든 족속과 만물을 지향한다. 본래 제자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형성할 생각은 없었다. 유대인으로서 ‘쉬나고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²⁸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도, 즉 ‘보냄을 받은 자’,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로 세우신 것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고, 교회가 증인의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하신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였다. 독일의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은 “교회의 본질은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의 참여와 세계 구원을 위한 그의 선교 참여이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 존재하며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라고 정의하며, 베텔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정의한다.²⁹ 따라서 교회가 구원사역에 전력으로 힘쓰지 않는다면 지역에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를 건립하고 병원을 세워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신뢰를 받아도 선교 사역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요 교회에게 부과된 최대의 과업이다.

김영래는 미래의 교육과 목회의 모델로서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증인공동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제자들을 선교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²⁸ 이종성, *교회론*, 69.

²⁹ 신동우, *선교학* (서울: 예루살렘, 1993), 90-91.

약속과 십자가 위에서 선교로 마감되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를 하셨다는 것은 교회와 크리스천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이는 교회의 목회와 크리스천의 사역에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세력을 만들거나, 그들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셨다.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들을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³⁰

그러므로 선교가 교회의 존재목적이고, 사명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선교의 사역을 위한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러므로 제자화 훈련은 곧 전도자 훈련인 셈이다.”³¹라고 설명한 김영래의 주장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를 통하여 교인의 수를 늘려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다. 즉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제의 공동체

구약성경에서는 신약성경이 뜻하는 교제(koinonia)에 해당하는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신을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신과 대화하거나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³⁰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35

³¹ Ibid.

때문이다.³² 그러나 기독교의 교제는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교제를 의미한다. 수평적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상대로 가지는 수직적인 교제가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구약적 회합, 회중의 의미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코이노니아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수직적 차원으로 성령의 사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코이노니아는 연결하고 상합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으로 성령 안에서 주신 개인적 은사를 이 땅 위에 나타내는 몸인 것이다.³³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사를 나누어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또한 그의 것을 우리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에밀 브룬너(Emill Bruner)는 “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함께 나눈 성도의 친교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 성령의 교제는 신약에서 두 번 발견되는 용어이지만(고후 13:13, 빌 2:1) 그 관념은 교회의 참된 본질을 부여하는 아버지와의 교제(요일 1:3) 그리고 아들과의 교제(고전 1:9)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³⁵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성령의 교제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깊은 교통의 경험이며 초자연적인 상호교제의 체험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신자들의 사귄이며, 둘째로 성령의 교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셋째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환경과 분위기로서의 사귄이며,

³² 하워드 스나이더,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69.

³³ 하워드 스나이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03.

³⁴ 이종성, *교회론*, 67.

³⁵ 황영철, *교회의 올바른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1999), 10.

넷째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교제를 맞본다는 지상적 모형으로, 다섯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동일성과 사귄 그리고 상호 교통과 흡사한 형태라고 하였다.³⁶

성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과 더불어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은 한 혈육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어받아 새롭게 태어난 신인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DNA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히 여기며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가 계속될 때, 신앙은 서로로 인하여 견고해지고 예수그리스도가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 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용납도, 이해도, 사랑도 구호와 광고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 앞에 선한 양심은 침묵하고 있다. 양극화와 소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는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만 가능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자 어원적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교회의 어원인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의

³⁶ 스나이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06-108.

공동체로서, 그리고 교제의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회에 대한 시대적 요청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그의 책 *Postmodern Pilgrims*(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에서 현대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전환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기 속에서 교회는 모더니티에 붙들려 재고품이 되고 낡아빠진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포스트모던의 특징에 근거한 EPIC,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 중심의 문화를 배경으로 4 가지 미래의 교회유형을 소개한다.³⁷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Experiential Church)

포스트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교회전통, 교회사역자, 교회제도)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인 야곱이 된다. 만남, 바로 경험이 메시지가 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말 그대로 삶에 이르는 방식을 ‘느낀다’ . 변화되고 싶은가? 포스트모던인들에게 이전에 갖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라.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새로운 의식을 느끼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열쇠다. ‘하나님의 언어’란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이 말한 것과 같이

³⁷ 레너드 스위트,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6), 61-64.

“우리의 삶 속에 쓰여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다”³⁸

총체적 경험은 포스트모던 예배가 추구하는 새로운 목표다. 새로운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총체적 경험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쉐키나(Shekinah, 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경험들은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온 감각을 한데 묶어 진, 선, 미로 가득한 천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이 임재하시는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³⁹

김영래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교육과 삶’에서 학문적 삶과 가상적 삶, 그리고 다중적 삶을 소개하면서 다중적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Experiential Church)’에 대하여 모던니티에서는 경험(experience)보다는 설명(explanation)을 신뢰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역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레너드 스윗은 “서구 기독교(교회)는 이성과 관찰의 신에 의해 지배되는 모던이라는 세계 속에 침몰되었다. 이제 (교회는) 계시에 눈을 뜨고 경험에 굶주린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잠을 깨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참된 것을 찾으려고 교회에 온다. 그들이 참된 것이라고 말할 때 결코 증명을 원하거나 진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험이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⁴⁰고 인용하여 다중적 삶 가운데 경험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탐험여행 같은 관광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험산업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이는 경험을

³⁸ Ibid., 78.

³⁹ Ibid., 79.

⁴⁰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250-251.

화폐화하여 지식경제에서 경험경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도 경험은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회(Participatory Church)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윗사람’ 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주위 사람’ 들로부터 단서를 얻는다. 이들이 모인 곳에는 더 이상 사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고객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성직자와 교수가 지닌 수직적 권위는 공동의 관심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로 대체되고 있다.

고정되어 있었던 것들은 유동적인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중심부만 고정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도 고정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단순히 제사장만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사이며 변호사다. 또한 건축가이며 프로그래머다. 우리 모두는 증권 중개인이며 미식가다. 우리 모두는 철학자들이며 문학비평가다. 이제 심지어 우리 모두는 배우이기도 하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서 참여자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 작용한다.⁴¹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⁴¹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은 미래교회*, 93-94.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⁴²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사람은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그들은 가라오케 마이크를 쥔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산악 자전거를 타는,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때 매체가 전달하는 진짜 내용은 정보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다. 이것을 바로 교회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디어의 ‘가치’ 다. 멀티 미디어가 전달하는 진짜 내용은 상호 작용이다. 컴퓨터 게임의 핵심은 모두가 상호작용하며 참여하는 데있다.⁴³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들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 가 되어야 한다. 이제 ‘직업 목사’ 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평신도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만이 존재한다. 모든 ‘참여자’ 는 전임 동역자다.

포스트모던인들을 끌어들이는 동방정교회와 신정통 예배의 힘과 신비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운동인 오순절주의의 유인력이나 신비함과 같다.

포스트모던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상호 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부딪치는 참여를 원한다. 오순절교인들은 ‘움직이는 예배’ 를 드린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춤, 이야기, 소리,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움직이는 예배는 상호 작용하는 예식을 통해

⁴² Ibid., 101-102.

⁴³ Ibid., 95.

사람들의 기대를 참여로 변형시킨다.⁴⁴

김영래에 따르면, 스윗은 포스트모던 문화를 "참여의 시대(an age of participation)", "접근의 시대(an age of access)"로 정의한다. 도널드 밀러(Donald E. Miller)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한 교회는 "지도력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의 정도"를 확대시킨다고 했다. 빌 이섬(Bill Easum)과 토마스 밴디(Thomas Bandy)는 "목회적 돌봄과 지도력에 있어서 성직자들에게 의존하는 회중들로부터 은사, 소명, 훈련된 평신도들을 의지하는 회중들로의 변화는 셀 그룹의 성장 뒤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목회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던 "만인제사장"에 대한 교리의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⁵

직접적인 참여와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원하는 시대의 변화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 전에 없는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 하여 만들어가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미지와 은유로 사고하는 교회(Image-driven Church)

우리를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베이(eBay)만이 아니다. NCR사의 광고에 의하면 그들의 ATM(현금 자동 지급기)은 '거래를 관계로 변환' 시켜주는 기계다. 에이전시 닷컴(agency.com)은 소위 '상호 작용적 관계 경영' 이라고 불리운다.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이것은

⁴⁴ Ibid., 115.

⁴⁵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252-253.

매체가 아니라 관계” 다.

이들이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이미지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은 감성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현대 세계는 언어에 근거를 두었다.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겨버린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가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

이미지는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다.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의 공립학교에서는 90개 이상의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90개국의 언어들과 전 세계의 6,500개의 언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은유다. 실제로 형이상학 자체가 곧 은유라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해졌다. 은유를 바꾸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 은유를 바꾸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다.

명제는 포스트모던인들의 귀에서 사라져가지만, 대신 그들은 은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⁴⁶ 최대의 상표가 ‘고유한 이야기들’ 이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미지와 이야기들이라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상표가 되어야 한다. 할리우드가 아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 사람들은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 1:15)라고

⁴⁶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은 미래교회*, 132-134.

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에 대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14:7,9)이라고 말씀하셨다.⁴⁷

문화는 은유, 상징, 이야기가 복잡한 그물처럼 짜인 상징화된 시스템이다. 교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제공하는 은유, 교회가 드러내는 상징, 교회가 전달하는 이야기인가? 포스트모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것은 구속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포장한 ‘비유’가 아니라 현대적 교리와 율법으로 전달했기 때문이 아닌가?⁴⁸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은유 또는 이미지다. 은유는 상상력 속에 진리를 담는다. 은유를 만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일이다.⁴⁹

성경적인 영성은 은유를 매개체로 하여 새로운 세계에 발맞춰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인간은 말이 아닌 이미지로 사고한다. 이미지 추구는 포스트모던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자체가 지니는 특별한 활동이다. 인간의 정신은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 은유는 실재를 창조한다. 은유는 사고와 행동을 구성한다. 은유는 언어 이상의 것이다. 은유는 장식 그 이상이다. 은유는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다. 은유는 추론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원인 자체다. 예배의 위력이 그토록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은유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⁵⁰ 은유는

⁴⁷ Ibid., 134-135.

⁴⁸ Ibid., 135.

⁴⁹ Ibid., 137.

⁵⁰ Ibid., 140-141.

무거운 주제를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 장면을 재빨리 포착하고 설명해주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이 아닌 이미지로 풀어가며 의사소통을 하셨다.⁵¹ “하늘나라는 와 같다.”⁵²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소통 매체가 되어 글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데 있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정신은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다. 믿기지 않는가? 꿈을 꿀 때 당신은 무엇으로 꿈을 꾸는가? 말인가? 이미지인가? 인류 최초의 기록 언어는 상형 문자다. 이미지와 은유는 인간이 공통 언어로 쓸 만큼 인간 가까이에 있다.

형이상학은 은유다. 몸의 세포는 정신의 은유를 따라 정렬되어 있다. 이미지는 영혼의 형체를 이루는 재료다. 솔로몬이 쓴 잠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23:7). EPIC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회중들로 하여금 대중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게 감찰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스윗의 주장에 대하여 김영래는 조지 래코프(George Lakoff)와 마크

⁵¹ Ibid., 143.

⁵²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다.

13:24...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3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13:33...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13: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존슨(Mark Johnson)의하면 “문화와 종교의 개념적 조직은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그리고 “문화에서 가장 근본적 가치는 문화 속에 내재한 가장 본질적 개념의 은유적 구조와 일맥상통한다.” “개념들은 단순히 전래된 자산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 자산에 의해 정의된다” 고 인용하면서 이미지와 은유는 복합적인 의미, 때로는 역설적인 의미를 한 가지 표현 속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의 카오스 이론(Chaos theory)과 복잡성 과학(Complexity sciences)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것과 저것’ (both/and-ness)의 포괄적 성향을 바탕으로 총체적 의미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동의하며 지지한다.⁵³

스윗은 “무엇인가를 은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로 접근할 때 위험이 닥친다. 또한 은유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험은 이미지의 장점이면서 약점인 모호함에 있다. 모호함은 은유를 친숙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 은유에는 자르고 꿰뚫는 예리한 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유를 선택하게 된다.”⁵⁴고 은유와 이미지가 가지는 장점과 약점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기도가 가지는 약점인 모호함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미지를 연관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포스트모던적으로 신앙적 소통, 즉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들 간의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적 기도는 이러한 소통의 도구로 아주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⁵³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255.

⁵⁴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은 미래교회*, 138.

관계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Connected Church)

웹 세계에서 즐겨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는 ‘연결(connected)’ 과 ‘공동체(community)’ 다. 실제로 그 두 단어는 ‘연결 공동체(connexity)’ 라는 새로운 단어로 하나가 되었다. 이베이(eBay)⁵⁵와 아마존닷컴은 모두 연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연결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

두 회사는 웹이 정보 출처라기보다는 사회 매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두 회사는 지구촌의 새로운 지역 광장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 공간’ 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때 세계를 정보망으로 연결시키면서 지구촌 식탁과 단일 시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동 공간’ 을 창조해냈다.⁵⁶

진정한 웹 사이트는 일종의 모임 장소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교장인 것이다. 나에게 있어 이베이(eBay)는 기독교의 역사적 유물, 고래 기름 램프, 돌고래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내고, 연락하며, 관계를 맺는 곳이다.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것 외에 메시지를 올리고,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며, 피드백 포럼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수립한다.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이베이 카페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인터넷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십대들의 51퍼센트가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 채팅방을 사용한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물으면, 정보 검색이 첫번째로 꼽히고 그 다음이 이메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을 물으면 그 대답이 바뀐다. 채팅방이

⁵⁵ eBay, 미국 인터넷 최대 경매 사이트

⁵⁶ Ibid., 163.

1위를 차지하다. 인터넷 총 사용 시간 중 26퍼센트가 채팅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어느 이용자는 “이베이(eBay)와 그 놀라운 사이버 세계는 상품 거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은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팔고 산다” 라고 말했다. 웃지말라. 이베이는 포스트모던인들에게 미국의 소도시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어디에서 우리가 한 말이 채권이 되고, 평판이 보증서가 되며, 친밀함이 신용이 되며, 음성이 힘이 되는 ‘상인의 나라’ 를 찾을 수 있겠는가? 달리 어디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 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곳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곳은 없다. 아마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다. 웹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교회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⁵⁷

포스트모던인들은 오랫동안 종교에 대해 논쟁해왔다. 그들은 이제 종교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제도화된 종교 제국’ 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규율에 복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그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함과 삶의 변화를 맛보는 것이다.⁵⁸

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십대는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고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가? 관계의 문제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애플 컴퓨터가 실망스러운 교훈을 얻었듯이 폐쇄된 시스템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모든 것은 관계와 협력의 문제다. 고전적인 것이든 유행을 타는 것이든 문화가

⁵⁷ Ibid., 165.

⁵⁸ Ibid., 166.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더욱 생기 가득한 인간적인 것이 매력을 끈다. 경제, 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비인격화되면 될수록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은 깊어진다. 음반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라이브 공연이 주는 공동체의 경험이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강화된다.⁵⁹

인터넷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회사, 쇼핑몰, 슈퍼마켓같이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공동체적으로 참여했던 영역은 이미 새로운 문화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관계가 많아질수록 개인들은 서로 소원(疎遠)해질 수밖에 없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던 한 환자는 남편의 컴퓨터를 ‘플라스틱 부인’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라이프(e-life)에서 새로 만난 사이버 친구들과 그들과의 접촉은 얼굴을 직접 대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자극할 것이다. 전자 기기를 완비한 우리 각자의 집 또는 성(Electronic Cottage, 앨빈 토플러가 「제 3의 물결」에서 언급한 미래의 생활양식- 편집자 주)이 전 세계로 연결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욱 개인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생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한 말이 포스트모던인들의 귀에 새롭게 울리고 있다. “나 자신을 가장 내적으로 만나는 그곳보다 더 깊은 곳에 당신은 계셨습니다.”

포스트모던의 핵심에는 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우리, 또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경험이 그것이다.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처럼 ‘나 자신(myself)’ 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 더욱이 복음서에서 개인으로서의 ‘나’ 는 ‘당신’ 이나 ‘타인’ 이 없는 ‘나 자신’ 이 될 수 없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⁵⁹ Ibid., 167.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한다.

EPIC에서 C가 ‘공동체(community)’ 보다는 오히려 ‘관계성(connectedness)’ 을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동체’ 에 대한 부정적인 함축은 편협함, 좁은 마음, 시끌 벼적함, 체제 순응과 같은 단어로 시작한다.

그러나 수줍어하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공동체’ 를 고통스럽고 박해하는 곳으로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부터, 예식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동물로부터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교회는 관계성을 구현하고 관계를 맺는 중대한 의식(儀式)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일상 속에서 ‘나’ 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와 연결되어 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나’ 는 나 자신과 전적으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 라는 세계적 혼합체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⁶⁰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단절과 비인격화의 심연은 깊어간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연결공동체로써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줌으로써 개인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생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발견의 길을 열어주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⁶⁰ Ibid., 170.

제 III 장

교회 갱신의 의미와 필요성

교회 갱신의 의미

본 장에서는 그동안 논의해 온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갱신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의 갱신을 중심으로 교회갱신의 의미와 교회갱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교회의 본질에 맞는 갱신의 도구로서의 기도에 대한 논의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갱신의 의미

갱신(更新, update)이란 실정에 맞지 않거나 낡은 것을 현재 상황이나 특정 환경에 맞도록 최신 정보화하는 것으로 문서나 웹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등 각종 분야에서 현재 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하는 작업을 가리킨다.¹ 컴퓨터에서 갱신은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황변화에 맞게 변경, 삭제, 추가하여 감당해야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자신의 구조를 바꾸는 일을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자신도 변하고 주변도 변한다. 그 속에서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

¹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mobile/main.do> (2017. 2. 21 접속)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앨런 허쉬(Alan Hirsch)는 갱신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기계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을 시동하려면 본래 설치된 상태로 재설정하는 수밖에 없다. 가령, 컴퓨터를 생각해 보라.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부팅을 하기 마련이다. 재부팅함으로써 처음 설정된 상태를 회복해서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다. 즉 교회를 예수로 재부팅함으로써 교회 자체를 회복하고 교회의 작동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²

프로스트와 허쉬는 지금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작동이 멈추었거나 작동 중 자주 오류가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한 자기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Re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갱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교회 갱신의 의미

신약에서 갱신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ἀνακαινίζω*와 *ἀνανεόω*이다. 이 두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전자는 *καινός*이고 후자는 *νέος*이다. 전자는 ‘새롭고 분명한 것’ 이란 뜻이고 후자는 ‘현재 순간에 속하는, 새로운, 신선한’ 이라는 뜻이다.³ 영어로는 Church Renewal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 new는 ‘새롭다’ 는 뜻이고 renew는 ‘다시 새롭게 한다’ 는 뜻이다. 즉 교회 갱신은 ‘다시 새로워진다’ 또는 ‘그리스

²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ReJesus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 홍병룡 역 (서울: 포이에마, 2009), 81.

³ C. K. 바레트, *국제성서주석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158.

도의 모습으로 거듭 난다’ 는 의미가 된다.⁴

이 말과 유사한 언어로는 개혁이란 용어가 있는데 ‘다시 모양을 갖춘다’ , ‘다시 새롭게 뜯어 고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갱신이란 말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구조와 제도 그리고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과 혼돈되기도 한다는 점이다.⁵ 이런 의미에서 교회 갱신은 현재의 교회의 모든 구조와 제도를 뜯어 고치는 혁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교회 갱신은 교회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요,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본래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보여주는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교회갱신은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 회복이다. 한국일은 “교회가 갱신된다는 것은 기관화나 제도화에서 운동성과 순례적 특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가 자신을 초월하여 세상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증거 활동을 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고 하였다.⁶ 즉 교회가 세워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 안정되는 반면, 제도의 틀 안에서 간혀 역동성을 상실하고 생명력을 상실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를 선교를 통하여 활발한 내적 역동성과 구도적 특성을 회복하는 교회갱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박위근은 “교회 갱신은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파생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⁷

⁴ 이계준, “교회갱신과 복음 선교,”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Vol. 1 (1981): 203.

⁵ 백장흠, *교회갱신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7), 6.

⁶ 한국일, “종교 개혁과 교회 갱신,” *장신원보*, 1998. 10. 27. 6.

⁷ 박위근, *교회 갱신의 과제와 그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목회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Fuller신학교 공동, 1987), 9.

교회 갱신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의 갱신이다. 교회의 갱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주장과 생각은 대립과 반목과 파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한국 기독교 분열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갱신이란 말은 개인적으로는 중생을 생각하게 되고 중생을 기초로 하는 영적인 힘의 회복을 상기시킨다. 즉, 한 개인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으로 교회적 시각으로 보면 갱신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⁸ 그러므로 교회 갱신은 한 개인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한 개인들, 즉 갱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의 경직된 제도와 구조를 갱신해 나갈 때, 진정한 교회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회개만 강조하는 개인적 갱신만으로는 교회 갱신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개인적 갱신 없이 구조적, 체제적 갱신만을 요구하는 일도 진정한 교회 갱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교회 갱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즉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때 가능한 일이며, 교회 갱신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변화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 갱신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갱신된 사람들이 사람을 갱신시킬 수 있는 교회의 제도와 구조, 즉 교회 갱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하겠다.

⁸ 김창인, *성서연구 중심의 소그룹 형성을 통한 교회조직 갱신에 관한 연구*, 65.

교회 갱신의 필요성

교회 갱신은 필연적이다. 갱신은 한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는 지속적인 갱신을 추구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교회로부터 물리치고 없애버려야 하며 성경에서 이탈한 것은 성경에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라고 하였다.⁹ 교회 갱신의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성도, 성경이 말하는 선교, 성경이 말하는 친교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고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갱신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예배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신다.¹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예배할 곳, 즉 성막을 짓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법을 제정하시고 온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도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므로 서

⁹ 지원용, *예배 의식문 해설* (서울: 권콜디아사, 1965), 7.

¹⁰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자인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교회는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를 교환하며 그 관계를 세우고 확인하고 맺어가는 모임의 터전이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소위 정성을 드린다는 치성(致誠)이 아니며, 복을 짓는다는 공덕(功德)의 행위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원과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다. 아울러 단지 그리스도인의 의무, 임무, 훈련, 예식의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예배의 의미가 모색되고 회복될 때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교회의 갱신은 필요하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진 유기체이다. 유기적 관계, 생명적 관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룩한 관계성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생명은 본래 역동적이며 창조적이고 관계적이다.

그러나 제도화, 조직화가 가져온 교회의 경직화는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다 빼앗아 가고 말았다. 이 시대의 단절과 소외와 파편적인 비교회적 증상은 교회의 역동성을 파괴하고, 교회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감정 없는 신앙생활을 답습하게 하고 건조한 신앙의 일상을 반복하는 관습화된 죽은 신앙, 죽은 교회를 양산했다.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기는커녕 스스로의 생명도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 식물인간처럼 소멸되어가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소통, 성도 간의 은혜적 유통이 없는 탓이다. 개인주의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이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공급이 끊겼다는 것이요, 성도 간 은혜의 나눔이 없다는 것은 모든 기능과 성장을 멈춘 채 간신히 호흡만 붙어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갱신은 개인주의화되어 화석화된 신앙을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교회의 갱신은 단절된 소통의 채널을 열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생명과 은혜의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의 온 몸 구석구석까지 돌게 하여 성장케 하는 일이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며 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설정은 신앙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출발자체가 잘못된 것만큼 치명적이고 해로운 일은 없다. 열심을 더할수록 파괴적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상에서의 신앙적 삶의 태도와 신앙인생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며 새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되물어져야 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¹¹

¹¹ 갈라디아서 4장 4-7절.

구약시대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실패한 인생들을 다시 모으시고 새 언약을 맺어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다. 성령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여 옛 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관계로 재설정된 것이다.

스나이더(H. A. Snyder)는 “교회갱신은 전적으로 각 개인이나 신자들 전체 그룹의 영적 갱신의 문제”라고 했다.¹² 교회의 갱신은 결국 영적인 문제, 영적 갱신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룩하고 특별한 관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심령에 변화를 받아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갈 때, 전체 공동체인 교회의 외적인 갱신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구별됨이 흐려져 가는 지금의 교회들은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를 향한 돌이킴과 죄를 고백하고 미워하는 회개함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 거룩하고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여 견고케 하는 영적 갱신에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증거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증인공동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대 위임명령(The Great Commission)은 복음을 전파하는

¹² 하워드 스나이더,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정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60.

것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¹³

이것은 교회의 의무요, 권리이며, 교회의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것이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여도, 절대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힘이 생기지 않으면 수행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사역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한, 그 증언과 증인된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마치 교회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듯, 교인 수를 늘리는 일과 교회 재정을 늘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자기 몸집 불리기와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도자로 훈련받아야 할 제자들을 개 교회 유지를 위한 충직한 청지기 정도로 훈련하고는 모든 훈련을 마친 것처럼 제자 자격증을 배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덕분에 한국교회는 선교를 위한 영적 전투가 아니라 교회관리를 위한 내홍(內訌)으로 지쳐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선교가 교회의 존재목적이 되도록, 선교가 사명이 되도록 하는 교회갱신이 절실하다. 한국 교회는 자기갱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자의

¹³ 사도행전 20장 24절.

모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제 공동체이다. 기독교의 사귄은 단순한 세상의 관계맺음과는 다르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혈연을 중심으로 모이지만 교회의 사귄은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교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수직적 교제를 전제로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도간의 친교는 하나님과의 사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모임과 자신의 취향을 따라 모여든 동아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교회의 교제를 친교, 코이노니아(koinonia)라 부르는 것도 나와 너의 사귄이 아니라 나와 너의 사귄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할 수 있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13:5).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 3:12).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확립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대상이라는¹⁴ 것이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교제가 있고, 사귄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대상이다. 결국, 교제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¹⁴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은 미래교회*, 173.

진정한 교제 공동체가 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공동체들이 상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최고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제의 부족은 관계의 부실로 나타난다. 관계의 부실은 고스란히 성도간의 깨어진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제공동체인 교회의 갱신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 일에 관계기도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제 IV 장

관계기도에 대한 성경적 기반

구약의 기도에 대한 정의

루터에 따르면 인간이 참으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은 신앙이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기도 위에 이룩되어야 한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앙은 순수한 기도 밖에 없으며, 우리의 신앙은 모름지기 기도다. 신앙은 인간의 내적 사고가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사귄 속에서 그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를 향하여 고백하고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義)로 돌아가는 것이다.¹ 이와 같이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의 총화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표현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사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 연구

팔랄(פָּלַל): 이 동사는 구약에서 84회 나타나는데, 보통 히파엘(Hithpael)형으로 사용된다. 히파엘(Hithpael)형으로 사용될 때, 그 어근은 대개 “기도하다”로 번역된다. 구약에서 “기도”를 지칭하는 히브리 단어는 적어도 12개 이상이 있으며, 그 중에 기도를 가리 킬 때 손쉽게 사용되는 단어는

¹ 지원상, “마틴루터의 기도론”, *기도*, 제 282호(1987년), 18.

팔랄이다.²

이 동사의 어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벨하우젠(Wellhausen)에 의한 것으로써 “자신을 자르다”, “자신을 상처 내다” 는 뜻을 가진다. 이는 율법적 금기 사항으로 예배 시 황홀경 속에서 자신의 몸을 상처 내는 고대 이방예배 행위 풍속을 타나낸다(왕상 18:28, 호 7:14, 신 14:1). 둘째, “심판을 통과하다” 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셋째, “엎드리다”. 넷째, “평가하다” 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은 테필라(תפילה)로써 주로 시편의 제목들에 사용되었고 구약에서 76회 나타나는데 시편에만 32회 사용되었다. 그리고 특히 이 명사형은 유대인들에 의해 시편 전체의 제목으로 표현되어 왔다.³

카라(קרא): 이 동사의 특정한 낱말이나 소식의 공표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로서 특정한 이름을 부르거나 주어진 이름이 명명된 것의 원초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동사는 한 대상을 어떤 특정한 일로 부르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이 동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거나 기원함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부름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 부름을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신다(시 145:18).⁴

샤알(שאַל): 이 동사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쓰는 용어로 구약에서 176회 사용되었다. 이 요구는 제한이 없다. 또한 이 동사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호의를 구하거나 “찾는다”, “바란다” 와 같이 소극적 의미를 포함하며 특별히 이 동사는 구약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다, 기원하다, 하나님의

² R. 레어드 해리스 외 편저, *구약원어신학사전*,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8), 906.

³ R. Laird Harri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1, (Chicago: Moody Press, 1980), 725-6.

⁴ *Ibid.*, 810.

계시를 묻다” 할 때도 사용되었다(시 27:4; 122:6; 민27:21; 수 9:14).⁵

할라(הָלַל): 이 동사는 피엘 형태로 구약에 16회 나타난다. 그런데 이 동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화를 진정 시키거나(출 32:11), 은혜를 구할 때 (119:58) 사용되었다. 또한 얼굴이라는 명사와 함께 나타나서 “간청하다” , “호의를 구하다” 의 뜻을 가진다. 이 때 호의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지는 것이다. 보통 이 동사는 자비나 위험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포함한다.⁶

과가(קָאָה): 이 동사는 구약에서 44회 등장하는데, 희일형의 기본적 의미는 “중재하다” , “놓다” , “짐 지우다” 이고, 팔형의 뜻은 “만나다” 이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와 “제거하려고” 만난다는 의미와 “간청하다” , “중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⁷

자아크(צָאָק):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환난 때에 도움을 부르짖다와 같은 뜻이다. 이는 주로 칼형으로 쓰이며 낚알형과 희일형으로 조금 나타나기도 한다. 곤경을 당해서 소리친다는 이 동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놀람의 표현이기도 하다(삼상 4:13, 사 15:5, 욥 31:78, 렘 47:2), 그리고 낚알형은 사람을 모으는 뜻으로, 희일형은 그 뜻이 다양하게 나타난다.⁸

라난(רָנַן): 이 동사는 히브리어에만 50회 이상 나타나며 기쁨 때와 비탄의 때에 함께 쓰여 크게 부르짖는 외침을 의미했다(시 17:1; 렘 31:12; 애 2:19).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쁨,

⁵ Ibid., 891.

⁶ Ibid., 715.

⁷ Ibid., 287.

⁸ Ibid., 248.

즐거움, 찬양 등의 단어와 함께 자주 나타나 이스라엘의 축제 상황을 표현한다.⁹

싸와(שָׁאָה): 이 동사는 주로 피엘형으로 나타나고 매우 강한 의미의 탄원이다. 구약에는 22번 나타나는데 주로 시편(10번)과 욥기(8번)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동사는 13번이 내가 부르짖다로 일인칭 단수로 표현되는데 이는 강력한 탄원이고 자서전적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애가나 감사의 찬양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도움을 부르짖는 대상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¹⁰

구약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

고대의 원시적인 형태에서 기도는 마술과 주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배자들은 그들의 마술적인 신성한 이름을 부름으로써 초월적인 힘의 도움을 구하거나 강요하여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흔적은 구약에서도 나타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곳도 있다(창 4:26, 12:8, 13:4, 왕하 5:11). 그러나 구약에서 나타나는 기도는 대상인 하나님과 기도자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다. 이는 고대의 기도형태와 완전히 다르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현존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인간의 반응이 구약에서 보여지는 기도이다.¹¹ 구약 시대의 기도자들은 이런 인격적인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며, 이런 인격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하여 감사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기도를 한 것이다.

⁹ Ibid., 851.

¹⁰ Ibid., 911-12.

¹¹ Alan Richardso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London: SCM Press Ltd, 1957), 169.

이스라엘 초기 역사 -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서의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대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직결된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과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 이 대화의 형태는 제단을 쌓거나(창 12:7, 8, 13:18), 복종하거나(창 12:1-4, 13:14-15), 신앙하거나(창 15:1-6), 질문하거나, 요청(창 15:2, 8, 18:23)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족장들에게 있어 기도는 주로 만남의 중보 역할로 나타난다.¹² 하나님은 계약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계약 밖의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하기도 한다(창20:7). 초기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며(창 18:22-23), 야곱은 자신의 일에 하나님과 흥정하기도 한다(창 28:20-22). 이런 만남에 하나님은 또한 꿈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대화의 만남은 가능했다.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¹³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여 용서받기도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져주시고 기도의 대화에서 상호 영적 교통을 나누는 관계를 회복하신다.

군주시대 - 섭리로서의 기도

이 시기 기도는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동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이

¹² Ibid., 170-71.

¹³ 출애굽기 33장 7-11절.

어졌을 때에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추방당하였다(삼상 14:36-42). 당시 기도는 제비뽑기와 관련되어 있다. 제비뽑기는 군주시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묘사되었다(삼상 23:2, 4, 10-12, 행 1:26).

예언자시대 - 정결의 요구로서의 기도

적극적인 반응의 행위 기도가 요구된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말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로 등장한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중보자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¹⁴ 아모스 시대의 기도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것 이상의 요소로 구성되며 (암 4:4-5, 5:21-21), 호세아의 경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결함의 요구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깨어진 것을 말한다(호 1-3장). 호세아는 마지막 부분(14:1-2)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그 은총을 남용하였음을 회개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가치 있다 했다(신 23:21-23, 사 29:13-14). 이러한 깨달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결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이 시기의 기도였다.

기도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일상적인 예배가 황홀한 하나님의 현현으로 전환된다. 그 속에서 회개는 정결함으로, 정결함은 서원으로, 서원은 하나님의 사명 위임으로 발전한다. 이사야의 일상적인 예배가 이러한 절정으로 변형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적 기도로 발전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은 하나님 면전에 정결한 사명자로 서도록 부르시는 것이다.¹⁵

¹⁴ Leon Dufour,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7), 445.

¹⁵ 이사야 6장 1-6절.

포로기와 그 이후 - 유대교주의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성전의 희생제사가 불가능 해짐으로 기도가 예배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율법의 가르침과 더불어 기도는 예배를 형성하며 희생제사를 대체했다. 유대인들은 이방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 했으며,¹⁶ 귀환했을 때는 기도가 모든 종교의식에 핵심을 이루었다. 포로기 이후 성전을 상실하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하여 모인 모임들로 회당이 발달된다. 회당은 개인기도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3 이사야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사 56:7)이란 말씀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도는 그들의 매일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시 55:17). 그리고 가정에서 안식을 시작과 끝에 하는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절기 만찬 때 하는 기도, 특별한 일이나 경사에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적인 기도의 관습이 일상생활에 보편화된다.¹⁷

신약의 기도에 대한 정의

어원연구

프로슈코마이(προσείχομαι): 신약성경에서 조건없이, 일반적인 기도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πρός*(향하여)와 *είχομαι*(하나님을 부르다)의 합성어로 가장

¹⁶ 다니엘 6장 10절.

¹⁷ Richardso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170.

포괄적으로 쓰인다. 이는 구약의 팔랄(פָּלַל)과 같은 뜻으로 신약에는 동사형 87회, 명사형인 προσευχη(프로쇼케)가 37회 나타난다. 주로 누가의 기록에 많이 나타나고 그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기도는 주로 대화체로 나타나며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기 위한 침묵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¹⁸

데오마이(δέομαι): 이 단어는 구약의 라난(לָנַן)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이도 관용적 문구로 일반적 의미에서 사용된다. 단어의 원 뜻은 “부족하다”, “결핍되다” 로 여기서부터 “간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기도의 의미가 생겨났다. 중보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에 사용되며 누가에 의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난다.¹⁹

아이테오(αἰτέω): 이 단어는 구약의 샤알(שָׁאַל)과 같은 의미가 있다.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원하거나 어떤 것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주로 복음서에서 개인적인 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로 나타난다.²⁰

고뉘페테오(γονυπετέω): “무릎을 꿇다” 라는 뜻으로 주인 앞에서 종이 행하는 자세이고 신들 앞에서 인간이 간구하는 모습으로 동방으로부터 유래된 풍습에서 나온 단어이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만유의 주, 만 왕의 왕으로 예수를 표현할 때 사용 되었다(롬 14:11, 빌 2:10), 또는 회개나 기도의 자세, 강력한 간구를 포함한다(눅 22:41, 행 7:60, 9:40, 마 17:14, 막1:40)²¹

엔팅카노(έντυγχάνω): 이 단어는 중보를 의미하며(롬 8:27, 24 히 7:25),

¹⁸ Collin Brown ed,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807.

¹⁹ Ibid., 860-861.

²⁰ Ibid., 856-857.

²¹ Ibid., 859.

일반적으로 황제에게 바울이 호소할 때 사용한 용어로 사도행전 25:24에서 “법적 청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²

프로스키네오(*προσκυνέω*): “입맞춤”이란 의미로 접두어가 붙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뜻이 된다. 신약에서 59회 나타나며 하나님이나 예수께 드러진다. 때로 복종과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시할 때 사용했다.²³

신약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

복음서에서 나타난 기도에 대한 예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 가운데 표현된 요구에 대해, 특히 간구자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응답하시리라는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어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요구하고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²⁴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는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표본으로 제시된다.

요한복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재’로 요한에게 나타난다. 요한에게

²² Ibid., 882; *성서 대백과*, 893.

²³ Ibid., 876-877.

²⁴ Richardso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171.

있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눈 생명체의 연합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요 15:1-8)의 비유로 나타난다. 이 연합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요 15:7). 이 유기적인 연합 기도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본성 속에서 공급을 전제한다. 이것이 다르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지는 기도로 표현되고(요 14:13-14, 16:23),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구체화한다(요 16:23-24), 보혜사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요한복음서에는 위기적 기도보다는 축사적 기도가 발전적으로 나타나고(요 6:11), 생명을 살리는 생명체적 기도(요 11:41)가 나타난다. 특히 요한은 예수의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그와 하나님의 하나됨, 예수와 제자들의 하나됨, 그리스도인과 예수의 하나됨의 영적 교통에 기도의 의미를 둔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성령과 기도라는 두 축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고 감사의 기도로 마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초대 교회의 삶은 기도의 삶임을 알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믿음을 얻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기도에는 죄의 고백이 포함되며 믿음으로 해야 한다(약 5:13-16).²⁵

바울서신

바울에게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롬 8:15, 26, 갈 4:6). 기도는 성령의 내주이다. 이를 위해 특별한 작정이나 말이 필요한 것이

²⁵ Ibid.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 기도는 행하여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기도이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대부분이 중보기도이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식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찬양, 간구, 감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²⁶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기도는 예수의 경험 속에 기도의 근거를 확고히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는 복종함으로써 인간과 같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요구를 중재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유일하고 최후적인 대제사장이 되게 한다(히 2:18, 4:14-16, 5:7-10: 7:23-28, 10:19-22).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프로세르코마이(προσέρχομαι, 접근하다)’이다. 기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다(히 4:16, 7:25, 10:1, 22, 11:6, 12:18, 22). 우리는 새롭고 생명있는 방법으로 확신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간다. 우리는 모세가 올라간 율법의 시내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주재하시는 하늘의 현장에 성도들 및 천사들과 함께 접근한다(히 12:18-24).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 이유는 ‘접근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히 11:6)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히 12:2)²⁷

²⁶ Browns,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873.

²⁷ 김홍정, *철야기도가 교회갱신에 미치는 영향: 서문교회의 철야기도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02), 6-15.

성경에 나타난 관계기도 유형

예수님의 기도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²⁸

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²⁹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의 모범 중의 모범이 되는 기도이다.

4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록이 상당히 많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다.

²⁸ 마태복음 26장 36절 - 46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²⁹ 호세아 1장 8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핍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겿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정도라고까지 하시며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그만큼 엄중하고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으셨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39).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 26:42).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 확인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 된 길로 계속 나아가자 선지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셔서 맹렬한 노를 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³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³⁰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5), 152-156.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 11:8-9)

아브라함의 기도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왔더라³¹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기도내용이다. 뜻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요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심판 기준도 변경시키시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돋보이는 기도 본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무시한 채 단순히 자신의 요구만 관철하려는 아브라함의 기도 태도는 이 기도에서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기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평가하신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³²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세계경영³³에 참여시키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친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세계경영의 파트너인 것이다.

모세의 기도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³¹ 창세기 18장 22절 - 33절. (아브라함의 뜻을 위한 기도)

³² 창세기 18장 16절.

³³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어 이끌어 가시는 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³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서 진멸을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백성’ 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니 한심해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백번 죽어도 마땅한 죄였다.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애굽 사람들과 고대 근동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출애굽시키셨다고 뒤집어씌우는 말을 할 것이라고 이를 걱정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후반부 기도를 이어간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나 계신 상태라 하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 이야기만 꺼내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를 지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³⁴ 출애굽기 32장 7절 - 14절. (모세의 백성을 위한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했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했다.³⁵

다윗의 기도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³⁶

1.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³⁵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42-44.

³⁶ 시편 23편.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 하나님이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³⁷

다윗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성실했다. 잘못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곁을 떠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³⁸

³⁷ 시편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³⁸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68-69.

히스기야의 기도

2.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³⁹

히스기야는 그의 질병에 대한 치유를 요청하는 기도에서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⁴⁰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실하게 사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도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셨다고 강변한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관계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느헤미야의 기도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휩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흠을 것이요

³⁹ 열왕기하 20장 2절-3절. (치유를 위한 기도)

⁴⁰ 표준새번역 열왕기하 20장 3절.

9.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⁴¹

느헤미야 기도는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500년이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 한 민족 두 국가로 200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 유다만 남아서 150년, 남 유다가 망할 당시의 예레미야로부터 150년이 지난 시점이 느헤미야 때이니, 느헤미야는 자그마치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간 기도를 한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모세5경을 포함한 구약성경을 훤히 꿰뚫고, 성경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모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또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답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 간청한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게 해주셨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묵상이 몸에 밴 사람이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가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⁴¹ 느헤미야 1장 4절 -11절. (나라를 위한 기도)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느 2:4)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밝히자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즉석에게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얼마나 깊은 신임을 받고 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에게 미치는지를 목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왕의 조사와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다 얻어낸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자신이 왕으로부터 얼마나 무한 신임을 받아왔는지를 부풀려 드러내고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두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느헤미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다.⁴²

바울의 기도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⁴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촌음(寸陰)을 아껴 복음을 전하기

⁴²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113-116.

⁴³ 로마서 11장 33절 -36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위해 쉬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달렸다.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다. 그리고 초기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잘 정리 정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장 잘 전달되도록 그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바울은 많은 젊은 제자들을 배출해 복음이 계속해서 잘 계승되도록 길을 열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다. 바울은 그의 남은 노년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땅 끝이라 알려져 있었던 서바나(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⁴⁴

⁴⁴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170-171.

제 V 장

관계기도에 대한 신학적 기반

기독교 역사 속에 사용되었던 관계기도 유형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¹의 기도

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명예와 축복이
모두 당신의 것이나이다!

우리에게 날과 빛을 가져다주며
찬란한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는
우리의 형제인 태양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태양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당신께서 하늘에 아름답고 뚜렷하게 배열해놓으신
우리의 자매인 달과 별들을 인하여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제인 바람과 공기와 구름
잔잔함과 날씨를 인하여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¹ 창조주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Msgr. Charles J. Dollen, *Traditional Catholic Prayers* (Huntington, Indiana: Our Sunday Visitor Publishing Division, 1990), 50-51. 조기연, *기도의 정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24에서 재인용. -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 1182-1226)는 1209년에 프란시스 수도회를 창설하였다. 1224년에 성흔(聖痕, stigmata)을 받았으며, 로마가톨릭교회는 그가 죽은 지 2년 만에 그를 성인으로 시성(諡聖)하고 매년 10월 4일을 그의 축일로 지킨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만물 가운데서 인생들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연약함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용히 인내하는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당신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매이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을 인하여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
당신의 가장 거룩하신 뜻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
왜냐하면 두 번째 죽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릴지어다
가장 겸손함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한 분이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며
당신께서 행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당신은 강하시며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셋이면서 하나이시오, 주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지고의 선함이시며,
주 하나님이시며, 살아 계시고 진실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시며 지혜이십니다.
당신은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은 기쁨이시며 즐거움이시고 정의와 중용이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부요함이시며 우리의 만족함이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며 우아함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 수호자 방어자이십니다.
 당신은 용기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천국과 희망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위로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생이시며,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구세주시여.²

토마스 아 캠퍼스의 기도³

오, 거룩하신 아버지, 주 하나님.
 이제와 영원히 복되시나이다.
 당신께서 뜻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행하시는 것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나 자신이나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만이 홀로 저의 진정한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희망이며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저의 선하심과 명예가 되십니다.
 오, 주님, 당신의 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자격 없이 당신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께서 주셨거나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성 버나드의 기도⁴

오,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가!
 그토록 상한 심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² Dorothy M. Stewart, *The Westminster Collection of Christian Prayers* (Louisville &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15. - 조기연, *기도의 정석*, 250에서 재인용.

³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a Kempis)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1425)는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을 지닌 기독교 문헌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성만찬을 통한 경건에 관한 것으로 유명하다. Dollen, *Traditional Catholic Prayers*, 52-53.(그리스도의 모방을 구하는 기도) - 조기연, *기도의 정석*, 225에서 재인용.

⁴ 성 버나드(St. Bernard, 1090-1153)는 시스터시안 수도사들이 유럽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도왔다. 그는 심오한 신비신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들에 의해 ‘최후의 교부’라는 특별호칭을 받았다. Ibid., 54-55. 조기연, *기도의 정석*, 227-228에서 재인용.

그토록 사랑스러운 심령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제 심령에 기쁨을 줍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이 꿀보다 모든 달콤함보다 더 답니다.

당신보다 더 단 것을 말할 수 없고
당신보다 더 즐거운 것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 예수님, 환자들의 희망이시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선하신지요.
그러나 당신을 찾아내는 자들에게는 더 선하십니다.

아무 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 아는 자만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 되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보상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있나이다.
아멘.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⁵

주님, 제가 언제나 당신에 의해 인도함을 받도록
제가 제 자신에게 허락하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의 계획을 따르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완전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⁵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St. Teresa of Avila, 1515-82)가 카르멜 파의 수녀(Carmelite nun)가 된 것은 20세 때였다. 수녀가 된 지 25년 후에 그는 카르멜과 수도원에서 엄격하고 소박한 규칙을 지키는 개혁운동을 시작하였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성공하자 전 세계로 빠르게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교회의 박사'(Doctor of Church)라는 호칭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매년 10월 15일을 그녀의 축일로 지키고 있다. Ibid., 61-62. 조기연, *기도의 정석*, 228에서 재인용.

제 인생의 모든 일에서, 큰일과 작은 일, 오늘과 모든 날들에서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이 일으키는 것이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명예를 위한
 믿을 만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제 안에서, 저에 의해서, 저를 통하여,
 언제나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시시의 성 클레어의 기도⁶

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옆구리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상처와
 당신께서 로마 병정에게 가슴을 열어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상처와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를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세례를 통해 원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가장 순하신 예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을 통해 봉헌되고
 또 받아들여진 당신의 보배로우신 피로써
 저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또한 당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제게 살아 있는 믿음과 굳건한 희망과 완전한 자선을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선행을 확실히 하고 꾸준하게 실천하게 하시며
 당신을 지속적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언제나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⁶ 아시시의 성 클레어 (St. Clare of Assis, 1194-1253)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 의해 전수된 규칙을 신실하게 따르는 기관인 '빈자 클레어' (the Poor Clares)를 창설한 사람이다. 로마가톨릭교회에는 매년 8월11일을 그의 축일로 지킨다. Ibid., 73-74. 조기연, *기도의 정석*, 233에서 재인용.

성 요한 크리소스툼의 기도⁷

오, 그리스도시여,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유월절이시여!
 오, 지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날에
 당신을 더욱 완전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당신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신성.
 불멸성과 생명을 주는 신비를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함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랜 날 동안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을 배우게 하소서.
 인류를 사랑하시며
 우리 영혼의 후원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불멸의 신비에 참여케 하시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곧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경외함에 있어서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 아멘.

오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당신의 신적인 지식의 빛을 비취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사
 당신의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당신의 복되신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⁷ 예베로부터 온 두 개의 기도문: 성 요한 크리소스툼(347-407)은 4세기 말 콘스탄티노플 대교구의 총대주교였다. 그는 많은 저작물을 남겼으며, 동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다. Ibid., 142. 조기연, *기도의 정석*, 247-248에서 재인용.

오든 육체의 욕망을 짓밟게 하시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선하신 즐거움을 소원하고 행하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 영혼과 몸의 빛이십니다.
오,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영원하신 성부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우리가 이제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기도에 관한 신학적 이해

기도는 하나님과 회중을 연결 시켜주는 대화의 장이며,⁸ 하나님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이는 수단은 아니다. 신앙공동체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회중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하다.⁹ 따라서 기도는 교회의 신앙훈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회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이다.¹⁰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교제의 표현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사랑과 복종의 첫 체험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적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접촉을 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과 방향을 제시한다. 기도에는

‘구하다’ , ‘노력하다’ 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⁸ 정기석, *기도 응답의 열쇠* (서울: 혜선출판사, 1984), 18.

⁹ Jean-Jaques Von Allme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예배학원론, 정용섭 외 역, (서울: 기독교출판사, 1969), 161.

¹⁰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제 3권*, 김문제 역 (서울: 혜문사, 1984), 601.

이미 제시하신 길을 찾아가며 그 길을 묻는 행위를 기도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¹¹

한미라는 그의 저서에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으며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¹² 예수는 바로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의 본모습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 강조한다.¹³

이렇게 기도는 대화, 교제라고 하는 관계 위에 기초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 성도간의 관계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에 관한 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기도에 관련된 부분을 신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으면 한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서의 기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서의 기도

예수는 산상수훈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면서, 내적인 삶의 모습으로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¹¹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5*(서울: 선린출판사, 1990), 52.

¹² 한미라, *디지털 환경과 복음* (천안: 호서대학교출판부, 2002), 209.

¹³ Ibid.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기도는 신에 대한 개인적 고백이나 찬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공동체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경험한다. 즉, 태어날 때 아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나 가정 또는 구역(속회)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도는 공동체 삶의 일부분으로 드러지고 있다.

한미라는 신앙공동체의 삶으로서 기도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기도를 듣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둘째 모든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 되게 드러져야 하며,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아멘’으로 기도를 끝내야 한다.¹⁴

초대 교회에서 보듯이 기도 공동체는 곧 교회를 의미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의 삶에서 가장 빈번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이 기도이다. 신앙공동체의 삶으로서 기도는 다양한 인간의 정서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쁨 때나, 슬플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성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정서의 표현이기도 하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

개신교 교회의 기도의 형태를 보면 매우 다양하다. 기도를 형태별로 분류해

¹⁴ 한미라, *디지털 환경과 복음*, 212.

보면 통성기도, 묵상기도, 금식기도 등이 있고, 내용별로는 찬양기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치유)기도, 중보기도, 예배기도가 있다. 또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개인기도와 공동체 기도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체 기도는 다시 교회내의 프로그램으로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특별 목적기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⁵

형태별 유형

기도의 형태별 유형은 기도를 소리 내어 하는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음식을 절제하거나 아예 끊고 기도하는가에 따라 통성기도, 묵상기도, 금식기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성기도(vocal prayer)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말과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간구와 탄원을 하나님께 드린다.¹⁶

둘째, 묵상기도(silent or meditation prayer)는 그리스 정교주의자들이 하는 관상기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영혼을 드리는 기도이다.¹⁷ 이 기도는 우리의 특정한 요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깨닫는 기도이다.¹⁸

셋째, 금식기도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자기 비움의 회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부탁을

¹⁵ O. Hallesby, *Prayer* 기도, 임은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129.

¹⁶ 류기중, *기독교 영성* (서울: 열림출판사, 1994), 20.

¹⁷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67.

¹⁸ 류기중, *기독교 영성*, 20.

받고 금식을 요구하는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금식은 기도의 절박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원함을 반영한다.¹⁹ 금식은 시위가 아니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의 선언이다.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뜻이다.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기도이다.

내용별 유형

할레스비(O. Hallesby)에 의하면 “기도는 인간의 심령과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으로 묵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깊은 탄식이나 놀람, 기쁨, 감사, 그리고 감사에서 나오는 외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고 말한다.²⁰ 기도의 내용들은 다양하겠지만 크게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찬양, 감사, 회개, 간구(치유), 중보, 예배를 위한 기도로 구분되며 이는 성경에서 뚜렷이 증거되고 있다.

특히 성경 중에서 시편은 가장 많은 기도가 실린 책으로서 위의 6가지 유형의 기도가 대부분 제시되어 있다. 시편 말씀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찬양은 ‘찬양한다’, ‘송축 한다’ 는 의미로 쓰여 졌다(대상 16:36, 29:13, 대하 30:21, 느 12:24, 시 113:1, 렘 20:13, 31:7)²¹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면 레위인의 찬양의 기도(대상 16:4-

¹⁹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 4장16절).

²⁰ Ibid., 66.

²¹ 나겸일, *새벽기도와 교회성장* (서울: 도서출판 샘물, 1993), 41-43.

36), 한나의 찬미의 기도(삼상 2:1-10)를 들 수가 있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자비에 대해 이성적인 소리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행위의 기도이다.²²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눅 17:15-19). 사도 바울의 경우도 감사기도를 많이 드린 것을 볼 수 있다(고후 4:15, 8:16, 9:11, 엡 1:15, 빌 1:3, 3:15, 살전 1:3, 살후 2:13, 딤후 1:12, 딤후 1:3 등). 진정한 감사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오셔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확신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²³

셋째, 영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죄의 자백(회개)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인간에게 언제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이다.²⁴

넷째, 자신의 문제를 비롯하여 부족한 것을 간구하는 간청의 기도이다.²⁵ 대표적인 예로는 구약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렸고(대상 4:9-10), 신약에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이 간청의 기도를 드렸다(막 10:51).

다섯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중보 기도가

²² Ibid.

²³ 박은규, *기도의 신학과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40.

²⁴ Donald G. Bloesch, *The Struggle of Prayer* *기도의 신학*, 오성춘, 권승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00.

²⁵ 나겸일, *새벽기도와 교회성장*, 41-43.

있다.²⁶ 특수한 형태의 기도로서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넓혀간다.

마지막으로 예배기도는 예배 내에서 실행되는 성례 기도나 예배 진행 기도로서, 성찬식이나 세례식 때 목회자가 하는 성령강림기도(invocation) 또는 예배를 열면서 하는 목회기도, 파송의 기도 등이 그것이다.

행위자별 유형

기도의 유형은 그 분류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 기도하는 행위자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개인기도와 공동기도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기도

기도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 개인기도는 개인적(personal)이지만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은 아니다. 도널드 블러쉬(Donald G. Bloesch)는 기도는 개인적인 성향과 공동체적인 성향을 모두 지닌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기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다고 한다.²⁷

포사이드(P. T. Forsyth)는 개인적인 기도는 영적으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의 분위기는 공동체적이며 공동기도는 그리스도 복음의 불가피한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골방에서 조용히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기도할 때, 매일의 삶이 성경의 진리에 의하여

²⁶ Ibid.

²⁷ Bloesch, *The Struggle of Prayer*, 62.

인도되기를 간구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다니엘 젠킨스(Daniel Jenkins)는 공동기도는 근본적인 기도의 형식이고 개인기도는 교회의 집단 기도의 한 작은 분야라고 주장했다.²⁹ 개인기도는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방언기도이다. 와그너에 의하면 방언기도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³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언기도의 개인적 차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방언은 준비기도이며 기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방언은 무의식 속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필요와 열망들을 표현하는 기도의 선물이다.³¹ 방언은 지적인 언어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매개체이다.³²

둘째, 침묵기도이다. 침묵은 마음의 자리를 비우고 넓혀서 더 큰 소리,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다. 침묵은 기도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체험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묵언의 영적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인간의 어휘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지는 것이다.³³

셋째, 골방기도이다.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대표적 골방기도의 모델은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한적한 곳과 광야, 들과 산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였다. 골방기도는 개인 영성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매일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시간을 정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²⁸ P. T. Forsyth, *The Soul of Prayer* (London: Independent Press, 1996), 46.

²⁹ Daniel Jenkins, *Prayer and the Service of God* (London: Faber & Faber, 1994), 107.

³⁰ Peter Wagner,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252.

³¹ Bloesch, *The Struggle of Prayer*, 74.

³² *Ibid.*, 92.

³³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18.

것은 영성훈련의 기본요소이며, 이것을 통하여 개개인의 신앙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공동기도

공동기도는 기도를 목적으로 하여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교회 내 공동 기도 프로그램은 새벽기도회, 심야기도회, 그리고 임시적인 특별 목적 기도회 등이다. 개인 기도와 달리 공동기도는 함께 모여 영성을 개발하고, 공동체 내의 사역, 은혜, 그리고 문제를 기도를 통해 서로 나눔으로써 목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필수적인 경험이다. 공동기도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이다. 공동기도의 중심요소는 기도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조해질 때(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등) 동료 교우들의 기도는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집단적 결단이 필요할 때 공동기도는 공동체와 개인을 하나로 묶고 지지해 주는 힘을 공급해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확신하는데 필요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³⁴ 오성춘, *영성과 목회*, 229-235.

³⁵ Bloesch, *The Struggle of Prayer*, 62-63.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 기도 프로그램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새벽기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절대 능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새벽기도를 강조하였다(막 1:35). 그는 새벽기도의 창시자였으며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도 새벽기도를 드린 영적 지도자였으며(시 119:147),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John Wesley)와 같은 위대한 종교가들도 모두 새벽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었다.³⁶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가 새벽기도 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예수의 새벽기도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성부, 성령과 의논하는 시간이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영적교제이며 신앙의 활력소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조용한 장소가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장자천은 새벽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³⁷

첫째, 새벽기도는 하루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출 23:19).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나 곡식이나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의 하루 중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³⁶ 정기석, *기도응답의 열쇠* (서울: 혜선출판사, 1984), 103.

³⁷ 장자천, *기도가 목회사역에 끼치는 영향*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 공동학위과정, 1985), 34-57.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다.

둘째, 새벽기도는 심령의 무장을 하게 한다(엡 6:17-18). 기도를 통한 영적 무장은 영적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새벽은 집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다(왕상 19:12). 새벽시간에 정신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에 용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새벽기도는 시간상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이다(행 3:1). 그러므로 새벽기도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하루 일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새벽기도는 영과 육의 생활 순서를 바르게 하는 길이 된다(마 6:33). 예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하셨듯이 육보다는 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롬 8:6). 육을 위해 활동하기 전에 영이 강건하기 위해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교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새벽기도는 영 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시 39:13) 실제 주변에서도 새벽기도를 통해 육의 건강을 되찾은 간증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철야기도

레벤 토레이(Reuben A. Torrey)는 “하나님께 기도의 밤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능력이 낮에 뒤 따라온다”³⁸ 고 말하면서 철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철야’ 라는 단어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운다.’ 는 말이다. 물론 밤을 새우는 목적은 각 사람마다 차별화 되겠지만, 철야기도는 하나님의 영감이나 계시와 같은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인생의 중대한 문제의 결정을 위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원할 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의식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테일러(J. R. Taylor)는 “철야기도는 마귀의 목적과 수단을 파악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³⁹라고 정의하였다. 철야기도는 지속성과 집중력 그리고 금식기도와 같은 간절함이 요구된다.

철야 기도는 예수의 지상사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기도’ 와 ‘ 기도하다’ 라는 단어는 4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공생애 부분에서 25회나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철야기도는 예수의 시간과 사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⁰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가 철야기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예수의 기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⁴¹

첫째, 예수는 공생애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철야하며 기도하였다. 열 두 제자를 택하기 전,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기 전, 잡히기 날 밤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였다.⁴²

³⁸ Reuben A. Torrey,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힘과 평안*, 김승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95-96.

³⁹ Jack R. Taylor, *Limitless Reach* (Nashville: Brodaman Press, 1977), 111.

⁴⁰ Torrey, *기도의 힘과 평안*, 12.

⁴¹ Ibid., 94-95.

⁴² Ibid., 96.

둘째, 예수는 하나님의 일들을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을 때,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돌려보낸 후에도 예수는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였다.⁴³ 특히 예수는 바쁜 사역 중에도 철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이다.⁴⁴

기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종합해보면 기도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일련의 공동체의 삶으로 이해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계성 위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다.

기도는 형태, 내용, 행위에 따라 유형화 될 수 있는데 형태별로 볼 때는 통성, 묵상, 금식기도로 나눌 수 있고, 내용별로 볼 때,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예배기도로 구분된다. 기도를 개인이 혼자서 하는가, 공동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개인기도와 공동기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기도가 존재하는 것은 기도는 단순하게 일정한 시간, 동일하게 행하여지는 신앙적 특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외침으로도 만나고, 침묵으로도 만나며, 금식으로도 만나고,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중보로도 만나는 것, 혼자서도 만나고 여럿이 함께도 만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⁴³ Ibid., 97.

⁴⁴ Ibid., 99.

관계 기도의 정의

기도의 신학적 정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 대화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주고받는 의사소통이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해야 한다.⁴⁵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견해는 개인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는 순전한 인간의 행위의 표현이 아닌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의 신앙생활에 의미성을 부여한다.⁴⁶기도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칼빈(John Calvin)은 ‘기도란 믿음의 주된 행사(Exercise of Faith)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못에서 은혜를 길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라고 정의했다.⁴⁷에밀 부르너(E. Brunner)는 ‘기독교의 기도란 우리가 스스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께 향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이라고 했다.⁴⁸ 칼 바르트(Karl Barth)는 기도를 선물과 순종으로 이해한다. 그는 “기도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하나님을 인간의 생활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⁴⁵ Bloesch, *The Struggle of Prayer*, 73-74.

⁴⁶ Henri J. Nouwen, *Living a Prayerful Life* 기도의 삶,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0), 36-40.

⁴⁷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70.

⁴⁸ 편집부, *성서백과 대사전*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80), 239.

말한다.⁴⁹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기도를 평안과 성취를 얻기 위한 기술 또는 방법으로 이해한다. 그는 기도를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것" 즉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엘룰에 의하면 기도는 만물을 결정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무방비상태로 맡기기 위하여 모든 인간적인 장치를 포기하는 것이다.⁵⁰윌리엄 펴(Deane William Ferm)은 "기도의 핵심은 즉각적인 암시나 의식계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한다.⁵¹존 웨슬리(J. Wesely)에 의하면 기도는 크리스천의 삶의 열쇠이다. '기도하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역동적 관계이며 기도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이라고 설명한다.⁵²바운즈(E. M. Baunds)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매개체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 이라고 보았다.⁵³

박은규는 기도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성, 전지 전능성, 자비성, 주권성을 기초로 한다' 고 단언한다.⁵⁴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철학적, 이론적 존재가 아니라 실재적 존재이다.⁵⁵

⁴⁹ Karl Barth, *Evangelical Theology*, Grover Roley trans.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Books, 1964), 160.

⁵⁰ Jacques Ellul, *Prayer and Modern Man*, C. Edward Hopkin trans. (New York: Seabury Press, 1970), 30.

⁵¹ 오성춘, *영성파 목회*, 67.

⁵² J. Wesely, *웨슬리 총서 4* (서울: 선교출판사, 1977), 143.

⁵³ E. M. Baunds, *The Weapon of Prayer 기도의 무장*, 한준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23.

⁵⁴ 박은규, *기도의 신학과 생활*, 46-48.

⁵⁵ *Ibid.*, 47.

기도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원하시며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을 전제로 한다. 즉,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⁵⁶

기도는 수동적이다. 기도하는 내가 멈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신다. 기도하는 내가 말로 아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 다 아뢰지 못 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실 뿐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시다(시 49:14-15, 시 103:10-14, 마 7:7-11).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것이다.⁵⁷

우리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죄성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당당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이다. 백성 아닌 자를 백성삼아 주시고, 자녀 아닌 자를 자녀삼아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독백에 불과했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시작되는 것이다.

⁵⁶ Ibid.

⁵⁷ Ibid.

넷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주만물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성취한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며” (마 26:42)라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신자 개개인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⁵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서 솟아오른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요약컨대,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이며 대화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단이요, 방법이 기도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시며, 자비하시고, 만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간구의 도구로서의 기도 수준을 넘어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간구이전에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고 넓게 가져가야 한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 중심의 기도를 지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초대하는 만남 중심의 기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교제와 대화에 목말라하는 포스트모던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놀라운 갈등해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⁵⁸ Ibid.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주어진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측면을 회복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은 더 없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관계기도의 정의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다음과 같이 그의 책에서 주장한다.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는 문서나 원리가 아닌 관계 안에 존재한다. 복음은 원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르친다. 로고(logo)의 힘은 바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즉 이미지가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수님 안에서 로고스(logos, 말씀)과 로고(이미지)는 하나가 된다. 14세기 초기까지 진리는 명제와 논제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

‘troth’⁵⁹에서 truth’로의 변화는 관계 속에 존재하던 진리가 문서와 증거 속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로 이동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야기된 문자 기반의 인쇄 문화가 확장되고 정부 권력 형태가 변화되면서, 진리를 독립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고가 성립되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진리(관계 속의 진리)와 유리된 교리로서의 진리, 신앙 구조로서의 진리, 명제로서의 진리가 서구 역사 속에서 거대한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주도했다.

‘진리’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네트워크와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속에서 이해할 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울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14:6)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2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16:13)

“당신에게 서약합니다(Plight thee my troth)” .

이 옛스러운 말은 진리가 인간 내면과 하나님의 형상 및 그분의 성육신하신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성경의 드라마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언젠가 나는 회중 앞에서 성경을 들고 흔들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것은 본래 명제와 프로그램과 원칙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관계성에 관한 입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당신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 말입니다.”

⁵⁹ troth의 뜻: 약혼, 서약, 약속, 성실, 충실

휴 로스 매킨토시(Hugh Ross Mackintosh)는 “복음이 역사적 존재와 단절되고 복잡한 형이상학적 이념과 동일시될 때, 그것은 토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분명히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나라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다.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troth)’임을 서약한다.⁶⁰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는 것이다. 신앙은 관계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랑과 신부가 약혼, 즉 결혼을 약속하듯 그 누구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공급자를 만나기 위함이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래리 크랩(Larry Crabb)은 “기도의 목적은 관계다” 라고 정의한다.

기도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을 가꾸는 것이고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 드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기도는 결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도는(그리하여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하나님과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이다.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주도하시는 쌍방 간의 대화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은 일 리가 있다.⁶¹

따라서 기도는 관계기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도구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⁶⁰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은 미래교회*, 186-188.

⁶¹ Larry Crabb, *짜짜기도*, 김성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84.

셈이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⁶²

응답의 축복은 관계에 달려있다. 즉 관계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핵심인 것이다. 간청한 기도가 응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은 관계기도를 얼마나 중심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김광률은 이상적인 기도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면서 “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기도 방법, 유형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경우,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가 이차적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법, 유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이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이상적인 기도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하나님 자신과 그의 업적, 말씀에 초점을 둔다.
2.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3.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과 원동력이 된다.
4.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고, 음미하고, 기뻐한다.
5. 듣는 능력이 깊어진다. 귀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로서 응답한다.
6.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치관, 태도, 마음을 배우게 된다.
7. 기도하는 동안에 찬미, 경외, 예배, 감사를 경험한다.⁶³

이제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관계기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관계기도란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하는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기도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며,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증대되는

⁶² 요한복음 5장 5-7절.

⁶³ 김광률, *목상과 기도 훈련의 실제* (서울: 스테반, 1995), 128-129.

결과를 누리는 기도이다. 따라서 관계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는 교제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단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現存)을 느끼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귄에 충실할 때, 현재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간구와 소원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부에 관련된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관계기도란 ‘간구’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만남’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얻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알아감’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란 ‘성취’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누림’ 중심의 기도이다.

제 VI장

교회갱신을 위한 성경적인 관계기도의 지향점과 실제

서로의 관계는 만나고, 관계를 맺고, 알아가고, 누리는 형태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관계를 누리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관계기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기도는 ‘간구’ 중심기도가 아니라 ‘만남’ 중심의 기도이다.

신앙의 출발이 문제를 해결 받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옳바르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야곱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문제해결을 간구하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¹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한계를 짓고 간구 중심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보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피조물 쌍방이 인격적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소통의

¹ 창세기 28 장 10 - 22절.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등장하신 것도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지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지, 단순히 거래의 조건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²라는 이덕근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의 기도는 들음의 차원보다는 내 뜻, 내 의지, 내 강조점을 일방통행 적으로 하나님께 강요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 중 일부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특정 지도자들, 일부 특정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이 현상에 대하여 김상근은 이렇게 경고한다.

이는 마치 우리의 뜻을 강요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수신(受信)의 기능을 잃어버린 일방적인 기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능성의 구조 즉,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단순화시킨 논리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물론 구하고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치될 때에 응답이 오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도에 대한 이 같은 이해가 계속된다면, 한국교회의 기도는 자칫 주술적 종교의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하나님은 기도자의 노예가 되며, 알라딘의 램프에서 보이는 신통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⁴

간구 중심의 기도는 단순하게 간구하고 응답받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간구 중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기도자의 비인격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² 이덕근,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카톨릭대학논문집* 8집 (서울: 카톨릭대학, 1982), 68.

³ 서광선 외2인, “한국교회의 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사상* 292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68.

⁴ 김상근, “한국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독교사상* 192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49.

데 문제가 있다. 간구 중심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며 기도의 대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전락시킬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기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관계기도이다. 관계기도는 간구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만남 중심의 기도이다.

이에 대하여 팀 켈러(Timothy Keller)는 기도가 간구를 넘어 만남을 추구하는 관계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참되고 인격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대화는 상당부분, 아니 대부분 피상적인 편이다.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채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걸꺼풀을 한 겹 벗겨 내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노라면 양쪽 모두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까지 드러낸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만남으로, 더 나아가 진실한 관계로 발전한다.⁵

그러므로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우리는 대화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말하기보다 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산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가 되지 않는 일이 극히 드물다. 사실,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았을 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딘 탓이었을 뿐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오셨다. 성경에 그 사실이 명백히 적혀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기보다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⁵ Keller, *팀 켈러의 기도*, 75.

관계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억을 통하여, 마음의 느낌을 통하여 말씀해 오실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는 지 나누어보자. 기도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있지만 본인은 첫째 찬양(Adoration)의 요소, 둘째 감사(Thanksgiving)의 요소, 셋째 회개(Confession)의 요소, 넷째 소원과 간구(Supplication)의 요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Jesus's Name)으로 마치는 대략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동안의 간구 중심의 기도는 찬양이나 감사, 회개의 요소보다는 주로 소원과 간구의 내용을 기도의 주 내용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이제까지 논의해 온 것처럼 기도가 만남이 되지 못하고 단지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인 기도가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구를 넘어 만남을 추구하는 관계기도로 나아가려면 소원과 간구의 기도내용을 줄이고 찬양과 감사와 고백의 기도내용을 극대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찬양과 감사와 고백의 기도는 간구와 소원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인 것이다. 소원과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문제일 수 있으나 찬양, 감사,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들을 기도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요청한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럼, 만남이 중심이 되는 관계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터치(Touch),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은유적 접근에 반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준비하자.

다음으로 성경이나 사도신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떠올리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도록 하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지금 현재의 내 삶에서 일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로 응답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십계명을 통하여 신앙양심을 향하여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접근에 자신의 삶을 살피고, 죄악을 확인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응답하도록 하자.

찬양, 감사, 회개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관계기도의 재료인 것이다.

관계기도는 ‘나’ 중심기도가 아니라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이다.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통 우리들이 기도할 때, 찬양(Adoration)이나 감사(Thanksgiving), 회개(Confession)의 내용보다 소원과 간구(Supplication)의 내용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일 공적인 기도이든, 개인적인 기도이든 주로 무엇을 달라는 소원과 간구의 기도에 일관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쏟아 놓는 것임을 알지만 때때로 기도자가 무의식적으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너무도 당연히 청구하는 듯한 기도의 태도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조기연은 이런 기도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기도의 지향(指向)에 관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무엇을 달라는 내용으로 일관된 기도의 근저에는 ‘나’ 즉 기도자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⁶ ‘나’ 중심적인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래 ‘나’ 라는 자아가 있어서 자기중심적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어두운 내면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자인 ‘나’ 가 중심이요, 주인이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은 보조자요, 해결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 또한 이런 죄된 본성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현세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치 사랑도 나를 위해서 하며, 용서도 나를 위해서 하고, 이해도 내 입장에서 하며, 성경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믿음도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⁷

그런 의미에서 거리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외식하는 기도나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알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도자가 자기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⁶ 조기연, *기도의 정석*, 10.

⁷ 마태복음 6장 5, 7절.

자기생각에만 집중하여 기도의 대상이요 기도의 상대인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탈피해야 함을 역설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⁸

따라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여 자기 의(義)와 자기의 이익(명예욕)을 추구하는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내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들 아멘 하더군’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자, 대화의 대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집중하여 경청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입장에 서서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므로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이 정도 했으니 됐어’, ‘정성을 다했으니 응답하실 거야’ 라는 식의 자기 의(義), 자기만족에만 집중하거나 ‘정말 급한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요’ 식의 자기감정에 매몰되어 있거나, 그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는 자기생각에만 치우쳐 기도의 대상이요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은 의식하지도 집중하지도 못 하는 자기중심적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다.

그 대신 이미 기도자의 모든 필요와 기도자의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⁸ 마태복음 6장 6, 8절.

계시는 하나님께 오로지 인격적으로 집중하여 경청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다.

결국, 나 중심 기도의 지향(指向)의 끝은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여기는 태도는 고사하고, 기도 속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없고 실제로는 자기만 존재하는 자기만의 고백, 혼자만의 되 뇌임, 자기와의 대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독백에 불과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중심적 기도는 기독교적인 기도라 할 수 없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나 중심 기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집중하여 경청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 속 만남에 있어서 나와 다른 타자, 즉 우리에게 인간의 형상을 부여하여 인격을 형성케 하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귀를 인격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내부적인 생각 환경을 조절하는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처럼 경청의 능력⁹을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 한다. 즉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와 은유적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관계를 상실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며, 예배는 말라기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간을 섬기는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⁹ 열왕기상 3장 9-12절.

전략한다. 감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청구가 되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저 받을 것을 받은 정도의 고마움으로 격하된다.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자기의 이익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과 목적, 안위가 자리잡고 있다.

래리 크랩(Larry Crabb)은 관계를 상실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는 그것이(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이나 자녀의 건강과 같이) 아무리 당연한 것일지라도, 그 기도를 추진하는 힘은 계속 달라고 요구만 하는 태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릇없는 자식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징징거리는 걸로 들린다. 하나님나라가 가까워 온다든지 왕 되신 하나님과 맺은 특권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여기서도 또 다시 나의 유익이 모든 것을 제압한다.¹⁰

그러므로 관계기도를 통하여 죄된 본성적 태도인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목회에서 향상시켜야 할 첫 번째 측면이 관계성이라고 하면서 이 관계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또 ‘관계를 맺고 있다’ 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장수하고, 건강하며,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하면서 리스 버크만(Lis Berkman)교수의 유명한 아라메다(Alameda)군 연구를 예로 들었다. 9년간의 조사를 통해 접촉이 적은 환자들이 사회적 유대감이 보다 더 강한 사람들보다 3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 스위트는 “관계에서 오는 힘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이 개인 간의 관계, 창조물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치유의 능력을

¹⁰ Crabb, *짜짜기도*, 71.

발휘하는 관계는 어디에서나 발견될 것이라”¹¹고 관계맺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한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바탕 위에서만, 구속을 통한 회복이 있다. 관계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허락하신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중보하고,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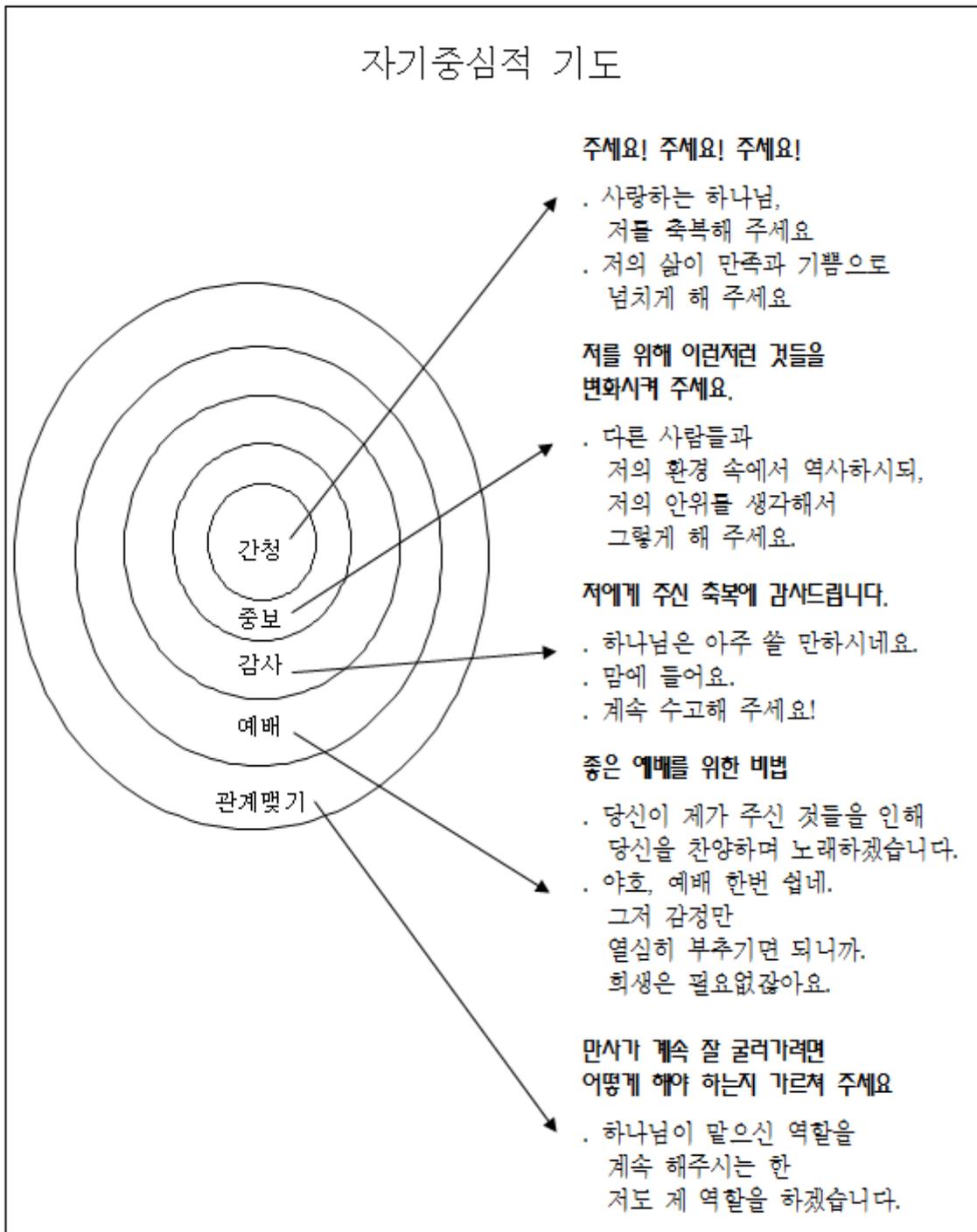
래리 크랩(Larry Crabb)이 작성한 다음의 표¹²는 ‘나’ 중심 기도와 ‘관계맺음’ 중심 기도의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관계기도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주된 관심사가 간청인 경우,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생각해 보자.

¹¹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은 미래교회*,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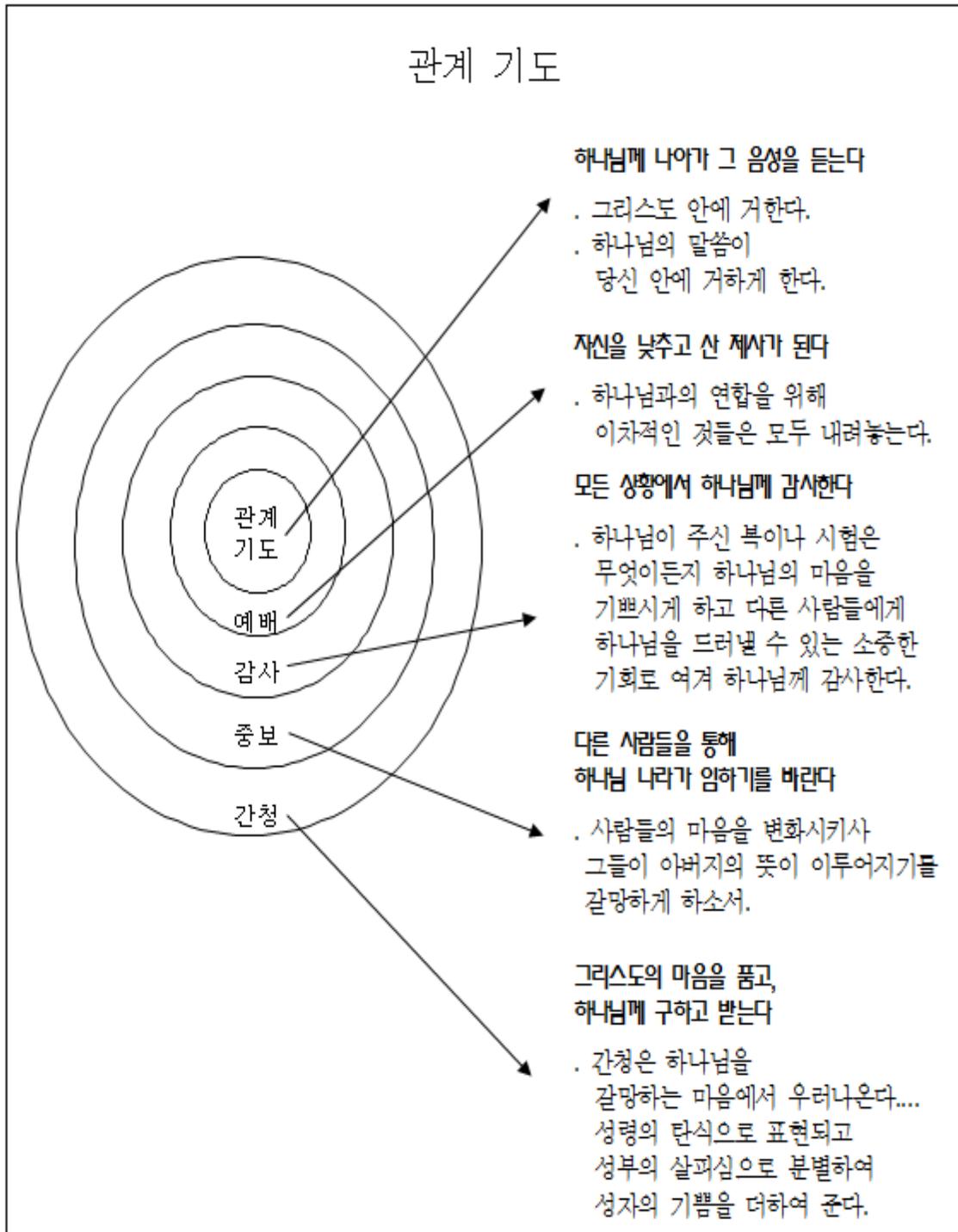
¹² Crabb, *짜짜기도*, 72-73.

<표1> 자기 중심적 기도



자, 이제 관계기도가 중심을 차지할 때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라.

<표2> 관계기도



관계기도는 ‘언음’ 중심기도가 아니라 ‘알아감’ 중심의 기도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초단계이자 그분을 알고 있는 기본 증거는 기도다. 성경적 사고에 근거한 끈질긴 영적 기도다.”¹³

D.A. Carson은 그의 저서 ‘바울의 기도’에서 기도는 자신의 만족감이나 행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성경 문맹률의 문제, 탐욕과 소비지상주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인종화합의 문제, 혼전 성관계 문제, 동성애 문제, 미전도 종족 선교와 유럽 재복음화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관계기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급한 필요들은 다른 훨씬 더 심각한 결핍의 증상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이다.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우리 중 다수는 영적 성장이 멎는 문화의 주체이다. 우리의 종교는 다분히 주관적 필요에 맞추어 재단되어 있고, 그런 주관적 필요는 거의 한결같이 우리가 얻으려는 행복과 만족에서 비롯된다. 참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다.¹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했으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여로보암 2세 때의 호세아의 외침처럼 하나님을 알아 가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은 절대적 기준을 상실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인간의 상상력과 주장과 우선순위 등의 상대적 기준이 복종하지 않을 때, 비상식적이며,

¹³ D. A. Carson, *바울의 기도*, 14.

¹⁴ *Ibid.*, 13.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며, 비인간적이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세류에 편승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강청하여 그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복, 더 큰 재물, 더 큰 권력, 더 나은 능력과 기술, 더 좋은 건강을 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관계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성경구절을 떠올리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에 당당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주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에 해당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¹⁵

¹⁵ 마태복음 6장 9절 - 11절.

뿐만 아니라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시기 바로 전에 앞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 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¹⁶

따라서 마태복음 6장 결론부에 등장하는 32절과 33절의 말씀도 ‘주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같은 맥락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여 얻는 것보다 우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 즉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기도처럼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받으시려고 하는 일’보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기도를 통하여 ‘얻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알아감’ 중심의 기도를 추구하고 지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얻게 되는 것이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¹⁶ 마태복음 6장 8절.

알고자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앎이 깊은 앎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섬길 수밖에 없는 분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관계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책을 통해 조망하는 것 같은 앎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마치 어린 아이 시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떼를 써서 받다가, 조금 자라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조정하고 타협하다가, 자신도 자녀를 둔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앞서 살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아버지의 깊은 인생 연륜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우리가 헤아리지 못 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짧은 소견을 맞추어가는 것이다. 참된 기도의 동기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먼저 존재하고 기도는 거기에 귀일(歸一)하려는 신앙적 노력이다.¹⁷

래리 크랩(Larry Crabb)이 작성한 다음의 표¹⁸는 ‘알아감’ 중심의 기도와 ‘얻음’ 중심의 기도의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관계기도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¹⁷ 김상근, “한국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49.

¹⁸ Crabb, *짜짜기도*, 122-123.

<표3> 알아가는 기도 vs 얻어가는 기도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기도' 의 전제	'하나님한테 좀 더 얻는 기도' 의 전제
<p>기도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청중이다.</p>	<p>기도란 하나님한테 우리의 요구 사항을 알리는 기회다. 그분이 우리 청중이시다.</p>
<p>진정한 기도는 절대 지루하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든 못 얻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삶에서 기도가 가장 중대하기 때문이다.</p>	<p>기도가 얼마나 흥미진진한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 있다. 최소한 얻을 희망이라도 있어야 한다.</p>
<p>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단이다.</p>	<p>기도는 우리가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단이다.</p>
<p>기도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너무도 나누고 싶어했던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대화가 일어날 때,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치유된다.</p>	<p>기도는 뭔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자녀처럼 행동한다.</p>
<p>간청형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관계형 기도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조금 알면 간청 기도의 능력도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한다. 하지만</p>	<p>간청하는 기도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열정, 말로 선포하는 믿음, 기도 횟수와 양, 그리고 간혹 기도하는 자세 등에 달려 있다.</p>

<p>하나님을 많이 알면 간청형 기도의 능력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p>	
<p>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 없이 하는 간청형 기도는 우리의 합당한 욕구를 함부로 주장하는 요구로 바뀌 버린다.</p>	<p>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마땅하다.</p>
<p>기도는 떼려서 해하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생에서 하나님을 뵈기 전에 이생에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p>	<p>기도는 우리가 장차 충만하게 받을 복을 미리 확보해 두는 도구다.</p>
<p>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생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절실히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한다.</p>	<p>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갈망을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만족을 주는 게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간구해야 한다.</p>

관계기도는 ‘성취’ 중심기도가 아니라 ‘누림’ 중심의 기도이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다.¹⁹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한 아빠 아버지라 즐거이 부르게 하신다고 말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²⁰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아는 빛을 비추어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앎으로 하나님과의 사귄과 동행과 임재를 즐거워하게 만드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들 뿐 하나님 그분을 누리지 못 하고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이다. 선물을 사온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로 더 기뻐한다. 심지어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보다 기도를 해내는 일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 기도를 해결해야 할 과제물로 여기는 의무의식이나 그동안 시도해 보지 않은 낯선 일, 낯선 세계를 탐구한다는 도전의식으로 충만하다. 이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보다 기도를 해내고

¹⁹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18.

²⁰ 로마서 8장 14 -15절.

말겠다는 성취감에서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기도자가 관계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계기도는 ‘간구’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만남’ 중심의 기도이고,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이며, ‘얻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알아감’ 중심의 기도이고, ‘성취’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누림’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는 올바른 기도라고 여겨 관계기도를 드리게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하나님과 관계맺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다. 그리고 일정의 시간이 지난 후 다른 기도방법을 찾으며 관계기도 훈련을 다 마쳤다면 기뻐한다면, 아직 관계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라는 말이다.

관계기도는 성취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누림 중심의 기도이다. 누림이란 함께 있기에 기쁘고, 함께 하기에 즐거운 것이다. 옆에 있기에 좋고, 가까이 지내기에 행복한 것이다. 무엇을 소유하였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얻었기에 즐거운 것이 아니며 무엇을 성취했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어떤 이는 기도를 하늘전화에 비유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모든 기도자에게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만 기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어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다. 응답받지 못하였음에도 기도를 즐거워하는 이들도 많다. 기도를 하늘전화에 비유하는 설명은 기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자끄 엘룰(Jacques Ellul)은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기꺼이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총 어린 결정에 의한

것이다”²¹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설명한다.

그렇다. 우리가 관계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체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사귄을 갖기 위함이다. 그는 인격적이시고 사랑자체이며 기쁨자체이시기에 그 분의 매력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고 지루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기도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열심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성공을 위한 좋은 관계들에 소망과 기쁨을 두고 살다가는 것이 보통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는 에 기도하는 일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기까지 하다. 기도는 고난당하는 자의 몫인 것 같다. 심지어 간구할 기도내용조차도 별로 없다. 회개기도는 거부감이 들고 강압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시간이 있을 리 만무하다. 더더욱 가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상황과 형편에 쫓겨 하는 수 없이 기도할 뿐이다.

이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는 분인 줄 알지만, 그저 내 문제의 해결자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공급자나 행복을 주는 성취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명령이라고 하니까 마지 못 해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탓이다. 우리는 관계기도를 통하여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²²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여정이다. 그 첩경이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²¹ 자끄 엘렐, *우리의 기도*, 김치수 역 (서울: 대장간, 2015), 31-32.

²² Ibid., 20.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임을 발견한다는 것은 복음을 진정 복된 소식을 받아드렸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자신을 아는 기도자는 하나님을 안다. 인간의 파괴적이고 거대한 죄성을 아는 기도자는 예수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완벽한 은혜를 안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머리 꼭대기를 맴돌 따름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마음의 불신은 지성의 몽매보다 더 심각하다. 지성에 사상을 더하기보다 심령에 확신(하나님의 사랑에 대한)을 심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마음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 그 증거로 “하나님 안에서 한 점 이지러짐 없는 행복을 한껏 누리”는 법이다. 그런 경험이 없는 이들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주께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섬기고자하는 갈망이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거룩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심중에 정말 복음을 지닌 이들은 “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도 죄 짓기를 삼간다. . . . 설령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 끔찍하게 여길 것이다.”²³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의 기본 틀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징벌이 겁이 나거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찮게 느껴지거나 나의 행위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드리기관 무척이나 어렵다. 즉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열정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²³ Keller, *팀 켈러의 기도*, 120-121.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전향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소망의 대상을 소유와 성취에서 예수그리스도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만남의 깊이를 더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그 매력에 흠뻑 젖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과 절박함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는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만족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계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림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젤라 손(Angella Son)의 주장을 들어보자.

안젤라 손(Angella Son)은 그의 저서 ‘기쁨의 영성’에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완전한 기쁨의 창조자, 완전한 기쁨의 담지자, 완전한 기쁨의 공급자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요, 기쁨을 지니신 분이시오,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가 기쁨을 지니신 분이요,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듯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 기쁨을 지니시고, 기쁨을 주시며,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삶의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였듯이 기쁨도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각각의 날에 창조를 마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만족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1:31)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피조물을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창조 행위 그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고 피조물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기쁨의 자원이다.”²⁴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한 근거는 하나님이 기쁨 자체이시며 행복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기쁨 발견자인 하나님만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기쁨을 발견케 하시며, 완전한 기쁨의 유일한 공급자인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을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을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1) 하시고, 이런 말씀을 다음과 같이 두 번 더 반복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3). 예수님은 기쁨에 대하여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참 기쁨인 예수님의 기쁨을 언급하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요, 완전한 기쁨이다.²⁵

관계기도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되어

²⁴ 안젤라 손(Angella Son), *기쁨의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192.

²⁵ Ibid., 196-197.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자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기도는 이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기는 기도. 관계기도는 만남의 순간을 향유하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안젤라 손(Angella Son)이 주장한대로 기쁨 거절자(joyrefusers)가 아니라 기쁨 발견자(joyfinders)²⁶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가장 풍성한 수준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기도는 어떤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거절한 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응답을 통한 성취에만 몰두하는 기도자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계기도는 응답으로 인한 성취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기도이다.

²⁶ Ibid., 23. - 안젤라 손(Angella Son)은 기쁨의 발견자를 '성향으로서의 기쁨이 계발된 결과로 삶의 의미와 목적에 확신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반하여 기쁨 거절자는 '삶에서 기쁨을 발견할 능력이 계발되지 않아 안전과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제 VI 장

교회갱신을 위한 관계기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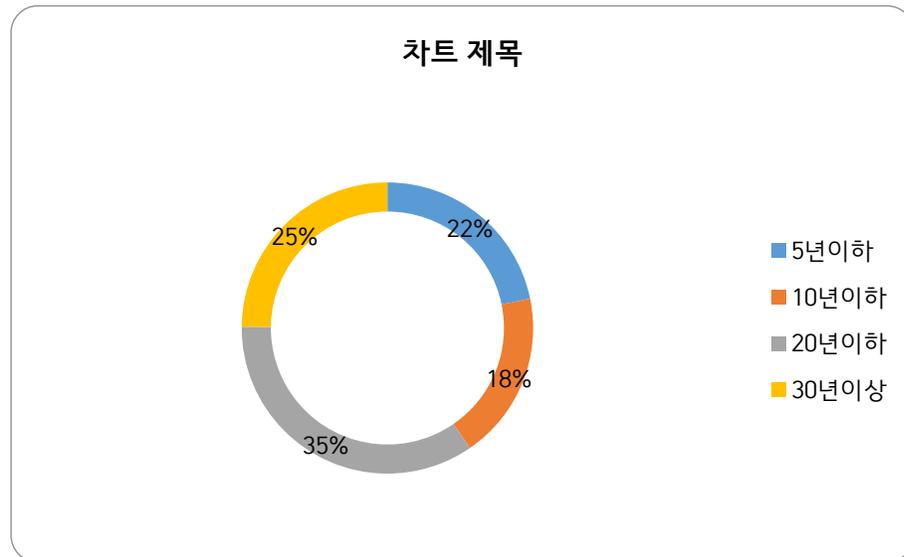
관계기도에 따른 기도 사역에 대한 반응 및 평가

본인은 지금까지 진행하여 온 모든 연구의 결과물인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적용하여 기도회, 세미나, 기도모임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하고 수행하여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계기도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차 설문조사는 관계기도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2차 설문조사는 이 관계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발생한 기도에 대한 인식과 상황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제부터 2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관계기도에 따른 기도 사역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4> 1. 신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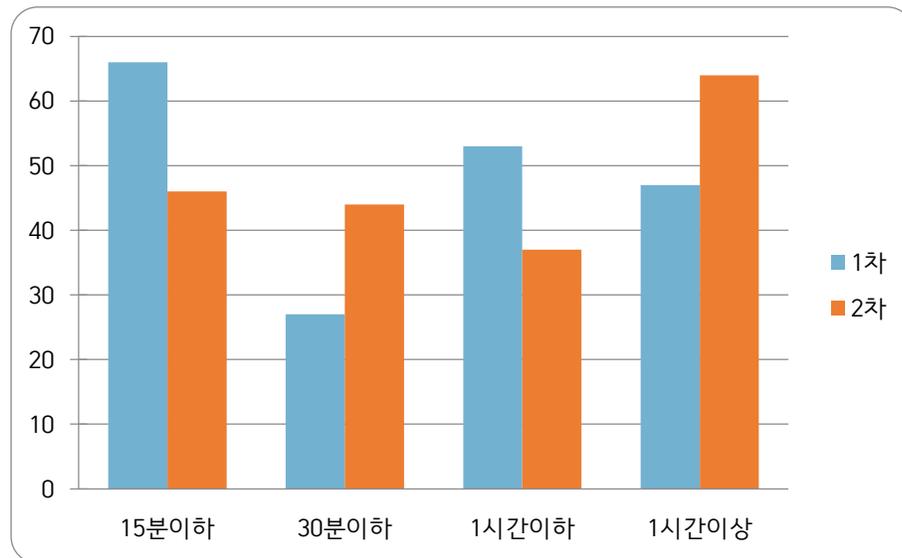
관계기도 프로그램 설문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신앙기간과 기도의 양태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참여자의 신앙생활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참여자 중 신앙을 갖게 된지 5년 이하인 참여자는 42명, 신앙을 갖게 된지 10년 이하인 참여자는 36명, 신앙을 갖게 된지 20년 이하인 참여자는 67명, 신앙을 갖게 된지 30년 이상인 참여자는 48명으로 대체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관계기도 프로그램 설문 전체 참여자의 59.5%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60%에 가까운 참여자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해져 있는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20~3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할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며, 오랜 시간 기도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관계기도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는 연구대상이 되는 교회의 50년이 넘는 역사에서 예측할 수 있듯 교회 구성원들 또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참여자보다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 온 분들이 많은 오래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요약컨대, 관계기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며, 기도를 이미 많이 해 보았을 뿐 아니라 나름의 기도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5> 2. 하루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¹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여자 중 66명이 ‘하루에 15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고 답했다. ‘하루에 30분 이하의 기도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 ‘하루에 1시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3명, ‘하루에 1시간이상 기도시간을

¹ 식사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나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제외한 하루 기도시간

갖는다' 고 응답하는 사람은 47명이상으로 참여자 51.8%가 하루에 30분이상에서 1시간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1>에서 보았듯 신앙기간 5년이하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전체 참여자 중 21.7%인 것을 고려한다면 하루에 15분정도 밖에 기도하지 않는 참여자가 약 66명, 즉 34%나 된다는 것은 기도생활이 의무적인 행위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도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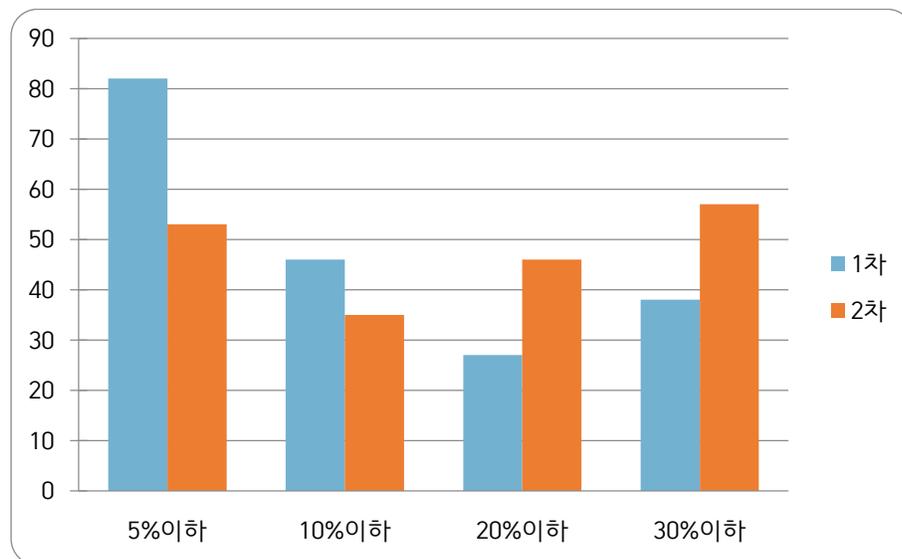
각종 교육과 세미나, 기도회, 기도모임 등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는 '하루에 15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차 설문조사 66명에서 46명으로 감소하였고, '하루에 30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차 27명에서 44명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하루에 1시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53명에서 37명이상으로 감소하였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1시간이상 기도시간을 갖는다' 라고 응답하는 참여자는 1차 조사 때 47명에서 64명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참여자 52.3%가 하루에 30분이상에서 1시간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1차 설문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차 조사 때, '하루에 15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 라고 응답한 34%가 2차 조사 때, 24%로 감소하면서 '하루에 30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차중 13.9%에서 2차 23.5%로 증가한 것은 15분 기도하던 참여자들의 기도시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1시간 이하 기도시간을 갖는다' 라고 응답한 1차 참여자 27.4%가 2차 때, 18.8%로 감소한 것은 기도시간의 감소가 아니라 기도시간의

증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시간을 갖는다’ 는 항목은 그 만큼 증가하였음을 그래프를 통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도 프로그램 수행 후 15분 하던 기도가 30분으로, 40~50분 하던 기도가 1시간 이상의 기도로 발전하여 기도시간이 증가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표6> 3.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여자 중 82명이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5% 이하 이다’ 라고 답했다.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1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6명,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2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27명,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3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38명으로 전체 기도시간 중 10%이상 ~ 30%이하를 감사기도로 드리는

참여자는 전체 참여자 중 33.6%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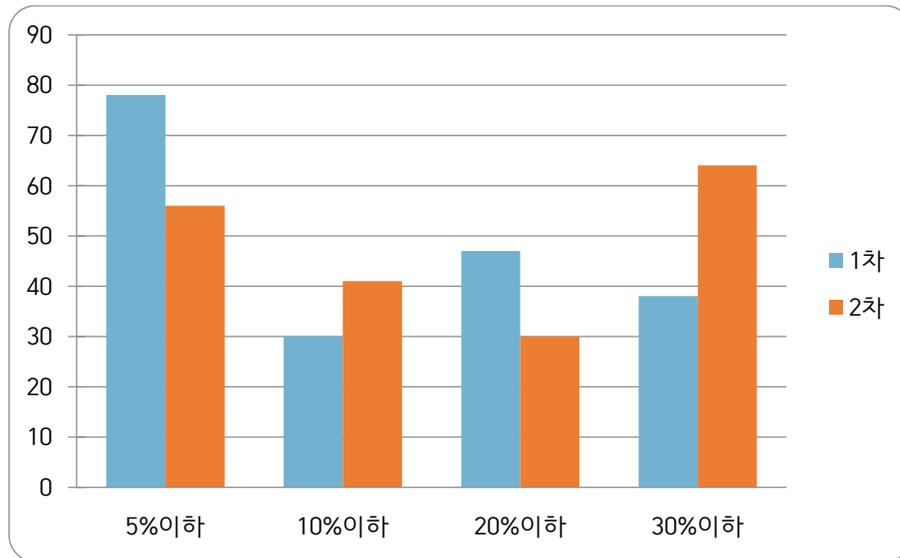
이는 <표4. 신앙기간>에서 보았듯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앙기간이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일상의 기도 속에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함께 논의 해왔던 바,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기도가 연음과 획득 중심의 기도, 성취 중심의 기도 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각종 교육과 세미나, 기도회, 기도모임 등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5% 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차 설문조사 82명에서 53명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1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1차 46명에서 3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2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차 27명에서 46명으로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3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1차 조사 때 38명에서 5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1차 설문조사 때 전체 기도내용 중 감사의 내용이 5%~10%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체의 66.3%를 차지하였으나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 2차 설문조사에서는 46%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도내용 중 감사에 대한 내용이 20%~30%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1차 설문조사 때에는 33.6%에 불과하던니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2차 설문조사에서는 53.9%로 증가하는 나름의 교육 효과를

보게 되었다.

<표7> 4.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여자 중 78명이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5% 이하 이다’라고 답했다.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10%이하 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20%이하 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7명,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30%이하 이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38명으로 전체 기도시간 중 10%이상 ~ 30%이하를 회개기도로 드리는

이는 앞의 <표6. 전체 기도시간 중 감사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에 대한 설문 분석에서 서술한 것처럼 <표 4. 신앙기간>에서 확인한 바,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술한 <표

6>의 1차 설문조사에서 감사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듯이 전체 기도시간 중 10% ~ 30%를 회개기도로 드리는 참여자가 44%라는 1차 설문조사 결과도 설문 참여 구성원들을 비추어 볼 때, 회개에 대한 기도내용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 설문 결과였다고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이다.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기에 대화의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신앙행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²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용서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죄용서에 대한 회개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화의 상대방으로서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분석은 그동안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기도가 소원과 간구 중심의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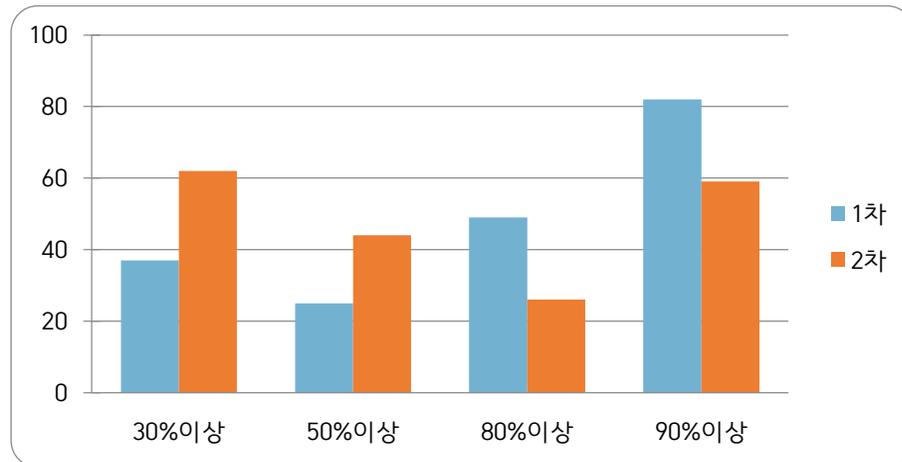
각종 교육과 세미나, 기도회, 기도모임 등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5% 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차 설문조사 78명에서 5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1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차 30명에서 41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2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차 47명에서 30명으로 적지 않은 감소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3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차 조사 때 38명에서 6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²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차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차 조사 때,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5% 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40.4%가 2차 조사 때, 29.3%로 감소하면서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10% 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차 때, 15.5%에서 2차 29.3%로 증가한 것은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내용을 5% 기도하던 참여자들의 회개기도시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20%이하 이다’ 라고 응답한 1차 참여자 24.3%가 2차 때, 15.7%로 감소한 것은 회개 기도시간의 감소가 아니라 회개 기도시간의 증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전체 기도시간 중 회개의 내용이 30%이하 이다’ 라는 항목이 1차 때, 불과 19.6%였던 것이 2차 때, 33.5%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1차 설문조사 때 전체 기도내용 중 회개의 내용이 5%~10%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체의 55.9%를 차지하였으나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 2차 설문조사에서는 50.7%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도내용 중 회개에 대한 내용이 20%~30%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1차 설문조사 때에는 44%에 불과하던니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2차 설문조사에서는 54.4%로 크게 증가하는 나름의 교육 효과를 보게 되었다.

<표8> 5. 전체기도 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3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명,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5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25명,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8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49명,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9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전체 참여자 중 82명으로 전체 기도시간 중 80%~ 90%이상를 간구와 소원의 내용으로 기도드리는 참여자는 전체 참여자 중 6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6. 감사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과 <표 6. 회개의 내용이 차지하는 시간>에 대한 설문 분석에서 이미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표 4. 신앙기간>에서 확인한 바,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기도시간 중 80%~ 90%이상를 간구와 소원의 내용으로 기도드리는 참여자가 전체 설문 참여자 중 67.8%를 차지한다고 하는 설문결과는 신앙의 연조(年條)와 관계없이 많은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형태가 자기중심적인 기도, 얻기 위한 기도, 성취 중심의 기도, 간구 중심의 기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구보다 만남을, 자기보다 관계맺음을, 얻음보다 알아감을, 성취보다 누림을 추구하는 관계기도를 훈련하는 우리는 간구와 소원 중심의 기도시간을 극소화하고,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찬양, 감사, 회개 기도시간을 극대화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구와 소원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기도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은 관계기도가 쉽지 않은 영적훈련임을 짐작케 한다. 관계기도를 훈련함에 있어서 간구와 소원에 대한 기도의 비중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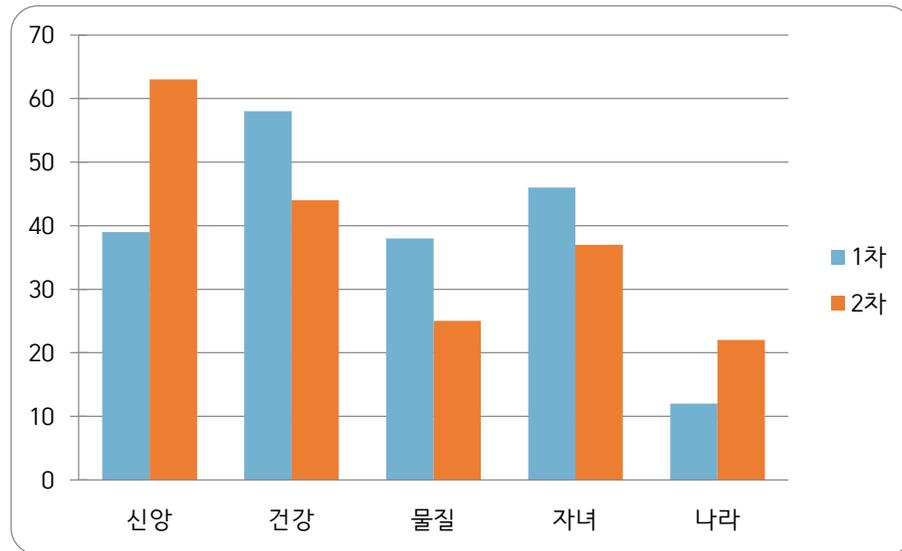
각종 교육과 세미나, 기도회, 기도모임 등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3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차 설문조사 37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5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차 25명에서 4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8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차 49명에서 26명으로 크게 감소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9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1차 조사 때 82명에서 59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차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차 조사 때,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3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19.1%가 2차 조사 때, 32.4%로 증가하고,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5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차 때, 12.9%에서 2차 23.0%로 증가한 것은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 내용을 80%, 90% 기도하던 참여자들의 간구와 소원 기도시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80%이상 이다’ 라고 응답한 1차 참여자 25.3%가 2차 때, 13.6%로 감소하고 ‘전체 기도시간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90%이상 이다’ 라는 항목도 1차 때, 42.4%였던 것이 2차 때, 30.8%로 다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볼 때, 그동안의 항목과는 달리 관계기도 훈련을 통하여 추구한 소원과 간구 기도시간의 축소와 찬양, 감사, 회개 기도시간 극대화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1차 설문조사 때 전체 기도내용 중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80%~90% 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체의 67.8%를 차지하였으나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 2차 설문조사에서는 44.5%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도내용 중 간구와 소원에 대한 내용이 30%~50%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1차 설문조사 때에는 32.1%였는데 관계기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2차 설문조사에서는 약 55.5%로 증가하는 교육 효과를 보았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하였다.

<표9> 6. 기도의 주된 내용



“당신의 기도에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건강, 자녀, 신앙, 물질, 나라 순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 중에서 건강문제(30%)를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 자녀문제(23.8%), 그리고 신앙문제(20%)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물질문제(19.6%)를, 마지막으로 나라문제(6.2%)를 기도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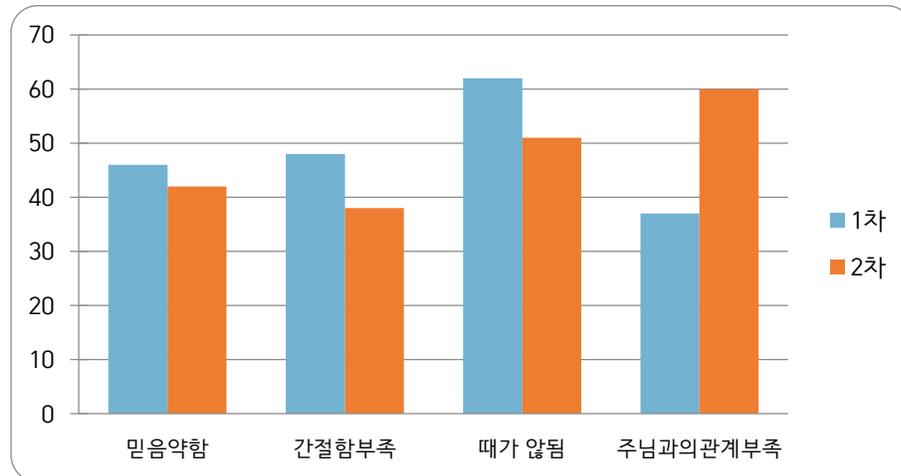
관계기도 훈련을 받은 후 변화를 살펴본 2차 설문조사에서는 신앙, 건강, 자녀, 물질, 나라 순으로 2번째 순위였던 신앙문제가 20%에서 32.9%로 증가하여 제일 많은 기도내용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문제(23%), 그 다음은 조금 감소했지만 같은 순위를 유지하는 자녀문제(19.3%), 그리고 물질문제(13%), 마지막으로 순위는 바꾸지 못했지만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문제(6.2%→11.5%)를 기도한다고 응답에 변화를 보였다.

설문을 분석해보면, <표4. 신앙기간>에서 확인한 바,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설문조사에서는 비교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건강문제, 자녀문제가 기도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였으나 관계기도 훈련을 받은 후에는 신앙문제에 더 많이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기도의 내용들의 변화에 비하여 변화가 너무 적게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중보의 기도제목인 나라문제는 1차 조사에 비하여 2차 조사에서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순위상 최하위를 면치 못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강조하는 관계기도 훈련은 건강문제, 자녀문제, 물질문제, 나라문제 등의 여타 다른 문제보다 신앙문제가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임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표10> 7. 기도가 응답받지 못 하는 이유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때가 안됨, 간절함 부족, 믿음 약함, 주님과의 관계부족 순으로 기도응답의 문제를 기다림의 문제(32.1%)로 보는 참여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간절함 부족(24.8%), 그 다음이 믿음이 부족한 탓(23.8%),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부족(19.1%)로 가장 작은 수가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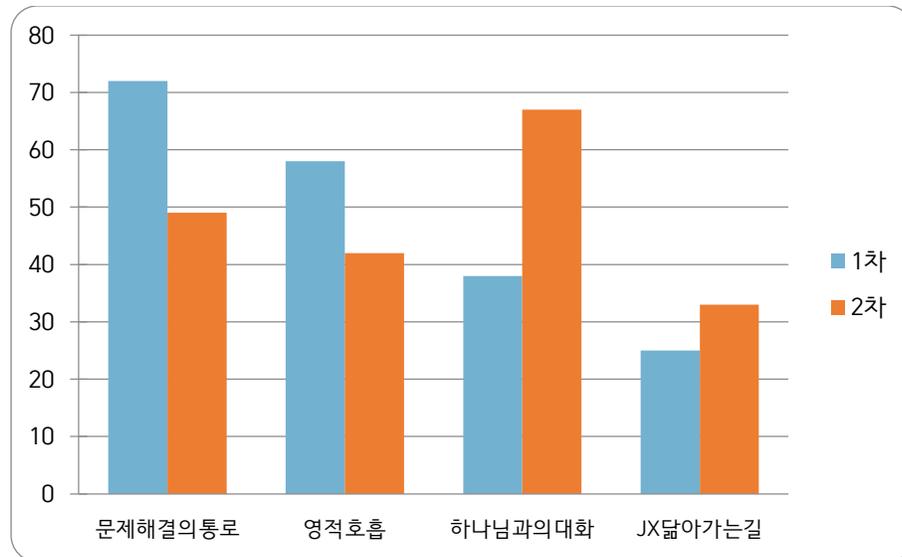
관계기도 훈련을 받은 후 변화를 살펴본 2차 설문조사에서는 주님과
관계문제, 때가 안됨, 믿음 약함, 간절한 부족 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식의
중요성이 대폭 증가하여 31.4%로 제일 많았고, 여전히 기다림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2위로 26.7%를 차지했으며 믿음의 문제로 보는 견해(21.9%), 마지막으로 간절함의
문제(19.8%)라고 1차와 다른 응답을 보여주었다.

설문을 분석해보면, <표4. 신앙기간>에서 확인한 바,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설문조사에서는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관계기도 훈련 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난 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1차 때에는 중요시 되지 않던 믿음 부족의 문제가 관계성 문제와 함께
부각이 되어 간절함의 문제를 앞질렀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원과 간구의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가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기도 응답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기도를 얼마나 중심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관계기도 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11> 8. 내가 생각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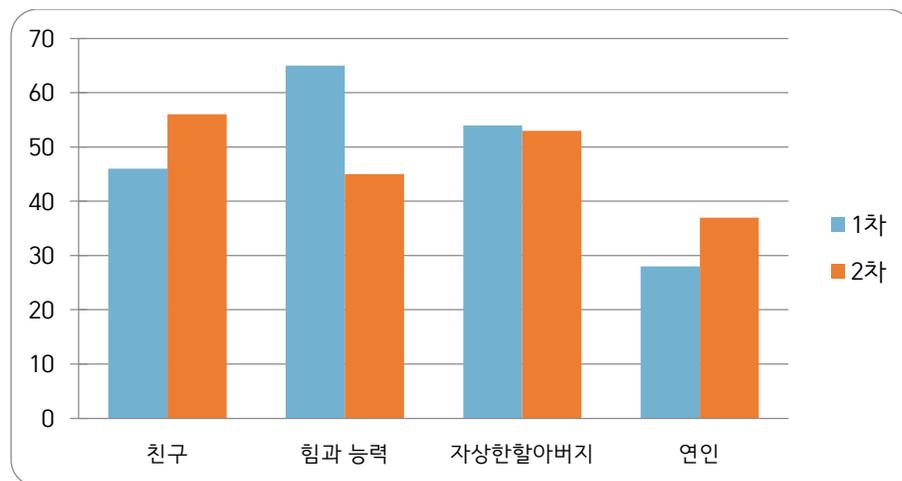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문제해결의 통로,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예수님을 뉘아가는 길 순으로 기도를 문제해결의 통로(37.3%)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그리고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표현에 가까운 영적인 호흡(30%),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19.6%), 끝으로 예수님을 뉘아가는 길(12.9%)로 응답했다.

관계기도 훈련을 받은 후 변화를 살펴본 2차 설문조사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 문제해결의 통로, 영적인 호흡, 예수님을 뉘아가는 길 순으로 기도가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35%의 참여자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응답을 했으며 그 다음은 여전히 문제해결의 통로(25.6%)로 보는 견해, 세 번째로는 영적인 호흡(21.9%),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뉘아가는 길(17.2%)라고 1차와 다른 응답을 보여주었다.

설문을 분석해보면, <표 4. 신앙기간>에서 확인한 바,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설문조사에서는 기도를 하늘전화와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는 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보는 견에는 기도에 대한 즐거움보다 의무감이라는 부담감을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관계기도 훈련을 받고 나서야 기도가 대화이므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의무를 넘어서는 기도하는 즐거움을 발견하려면,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과 대화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대화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어본다.

<표12> 9. 기도할 때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당신은 기도할 때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힘과 능력, 자상한 할아버지, 친구, 연인 순으로 참여자의 33.6%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힘과 능력의 이미지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자상한 할아버지 27.9%, 친구 23.8%, 마지막으로 14.5%의 참여자가 연인이 떠오른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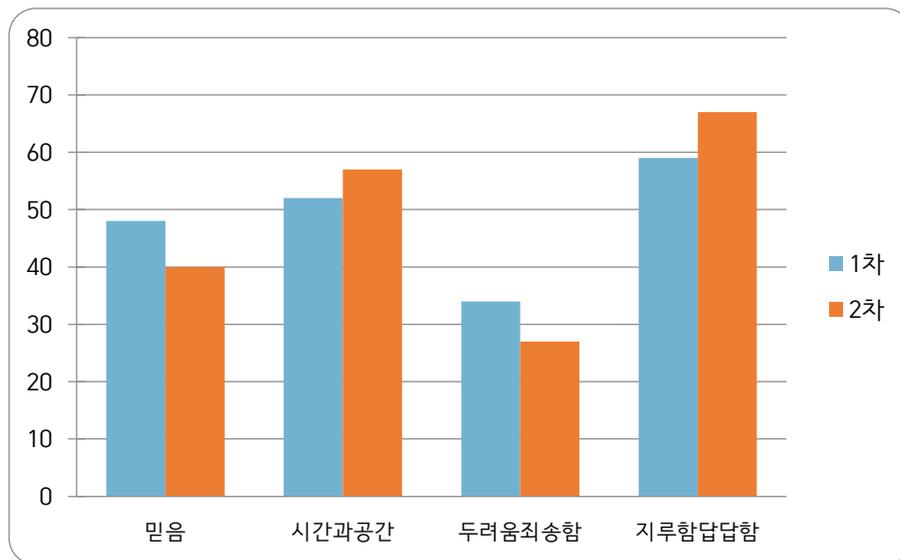
관계기도 훈련을 받은 후 변화를 살펴본 2차 설문조사에서는 친구, 자상한 할아버지, 힘과 능력, 연인 순으로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관계성의 이미지인 친구를 29.3%가 선택했고, 무한 공급자의 이미지인 자상한 할아버지 27.7%, 힘과 능력의 이미지는 매우 줄어서 23.5%, 그리고 관계성의 절정인 연인의 이미지는 아직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해보면, <표 4. 신앙기간>에서 확인한 바,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33.6%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힘과 능력으로 떠올리는 것은 기도를 간구와 소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다음 순위인 자상한 할아버지도 무한 공급자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계기도 훈련 이후 1 순위로 대화의 전형인 친구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은 자상한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그 다음 순위인 힘과 능력의 이미지와 1 순위인 친구의 이미지 중간형으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관계의 절정인 연인의 이미지에 도달하기에는 관계기도 훈련이 많이 부족한 듯 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도에 대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관계기도 훈련을 할수록 그동안의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 만남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이미지들도 관계성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표13> 10.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지루함과 답답함, 시간과 공간의 문제, 믿음의 문제, 두려움과 죄송함 순으로 지루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참여자가 무려 30.5%나 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6.9%,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24.8%, 마지막으로 17.6%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송함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관계기도 훈련을 받은 후 변화를 살펴본 2차 설문조사에서는 놀랍게도 1차 조사에서 1순위를 차지했던 지루함과 답답함이 30.5%에서 35%로 약 5% 더 증가해

있었고 기도할 시간과 공간의 문제도 26.9%에서 29.8% 소폭 더 증가한 상태였다. 그리고 3순위인 믿음의 문제 20.9%로 소폭 감소했고,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죄송함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다는 14.1%로 소폭 감소했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해보면, <표 4. 신앙기간>에서 확인한 바, 이번 설문조사가 신앙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인 점과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59.5%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30.5%가 기도의 방해요소로 지루함과 답답함을 지적한 것은 간구 중심의 기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사는 교인들은 기도를 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 기도할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 따라서 기도의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놀랍게도 2차 조사에서 더 그 지루함과 답답함이 증가한 것은 간구 중심으로 기도하던 참여자들이 관계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 하여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하나님과 대화는 듣는 것이 기본이므로 간구 중심의 기도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맘껏 쏟아놓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조사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지적한 참여자들은 기도할 마음은 있으나 삶에 쫓겨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더욱 증가한 것은 그동안의 장소와 시간문제에 별로 구애 받지 않던 참여자들까지 관계기도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된 환경을 찾고 있는 때문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골방 같은 환경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순위를 유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송함이 기도를 방해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학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윤리적인 면에 치우쳐있거나 율법적인 면에 치우쳐 은혜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1, 2차 조사에서 보았듯 관계기도 훈련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기도를 통한 행복자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쁨을 누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관계기도 훈련이지만 지금의 간구 중심의 기도를 탈피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도 그리 쉽지도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구 중심의 기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관계기도 훈련의 시작은 조금 어색하고 힘들지만 관계기도가 몸에 익어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은 깊어지고 만남의 기쁨을 배가 되어 갈 것이다.

종합평가

그동안의 사고와 습관을 바꾸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문과 훈련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된 분들도 있지만, 20년 이상 된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 특히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 온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 분들이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고, 기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기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그저 또 다른 기도 방법 하나를 더 배운다는 생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듯 보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분들로 인하여 기존의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만남 중심의 기도로,

관계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신앙적 도전을 받아들여 열심히 훈련받고 그 맛을 알아가는 기도자들이 생겨 참 보람되고 즐겁고 의미있는 훈련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갱신을 위한 관계기도 훈련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각 종 교육가 세미나와 기도회 기도모임, 그리고 2차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이 관계기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기도에 대한 선 이해를 살펴보고, 각종 교육과 훈련과정을 갖고 난 후, 다시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설문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모두 10가지였으며 각각의 질문에 따른 응답과 반응을 모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깨달았던 전체적인 평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깊은 기도와 신앙적 연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설문분석 <표 4. 신앙기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신앙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가 참여자 전체 중 21.7% 정도이고,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설문 참여자가 무려 59.5%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신앙기간이 많다고 기도의 양태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분들도 간구 중심의 기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기도를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오래된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 신앙기간이 오래되었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오랜 신앙기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관계기도 훈련에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신앙의 기간과 신앙의 깊이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성도의 성장을 도우려면 하루 빨리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중심의 기도로 기도의 패러다임부터 갱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교회갱신의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생각보다 간구 중심의 기도에 깊이 몰들어 있다는 것이다. 습관화된 간구 중심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표 9. 기도의 주된 내용>에서 보았듯이 기도의 주된 내용들이 건강, 물질, 자녀의 문제 같은 개인적인 기도제목들이라는 것이다. 중보의 기도제목이었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기도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관심도 결여되어 있었다. 심지어 관계기도 프로그램 후에야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또한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제목을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었다. 즉 응답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0. 기도가 응답받지 못 하는 이유>에서도 1차 설문조사 때나 2차 설문조사 때나 큰 변화가 없는 인식이 ‘때의 문제’이다. 관계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 했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아직 관계기도가 몸으로 체득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하는 소위 ‘하늘 전화기’로 기도를 인식하는 태도가 수준 높고 올바른 믿음인양 내면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표 12. 기도할 때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확인한 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 더 확실해 진다. 간구 중심의 기도인식을 가진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공급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인식도 부족하고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자신이 가져 온 기도의 제목이 절박하면 마치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부탁하듯 간절하고 스스로도 기도의 만족도가 높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기도는

이내 재미없고 식상한 기독교적 행위 중 제일 답답하고 지루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성도의 진정한 영성을 위하여 간구 중심의 기도를 탈피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관계기도에 전력하도록 강권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셋째, 관계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집중하는 기도이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 휩쓸려 하나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일도 버겁다. 그래서 성수주일을 하고 십일조를 잘하는 종교적인 생활만 잘해도, 잘 믿는 줄 안다. 하나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 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시간이 전적으로 부족하다.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끼리도 대화가 부족하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하나님과도 대화가 부족하면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때에야 하나님을 찾고 울고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린 제한적 관계를 맺는다. 어떤 성도들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나마 간절한 기도제목이라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원과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하는 것을 주면 끝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실 이유가 없다. 심지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힘이나 능력 정도의 이미지로 떠올릴 지경이다.

그러므로 관계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사역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인 것도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인격성이다.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관계기도는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도 이 속성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하듯 하나님은 존중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의에 대하여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권을 갖기 위해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네 밖 마을 입구까지 나와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거지꼴이 되었어도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자식을 보면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 많은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처럼 서운해 하시고, 우리의 사랑처럼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그저 동전을 넣으면 그 돈의 값어치에 맞는 음료수를 뱉어내는 자판기가 아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자신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맡겨놓은 양 마구 요구하고, 안 주면 관계를 끊을 것처럼 밥도 안 먹고 시위하는 자식보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해주고, 하나님을 높여주며 하나님을 위해 노래도 불러주는 자식이 좋다고 하신다. 모를 줄 알았는데 그동안의 보살핌을 떠올리며 섬세하게 챙겨주었던 것을 헤아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식이 좋다고 하신다.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는 하나님 품에 안겨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며 괴로워하는 자식을 볼 때면, 가슴 속에 긍휼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 견디기 힘들어 하시다가, 자식을 안아 등을 도닥여 주며 용서하시고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돌려보내시면서 자주 자신을 찾아오라고 맛있는 차 한잔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보자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들로 풍성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써서 받는 것들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 하찮은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물질과 소유로 평가할 수 없듯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손에 들린 것들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다함이 없는 부요함에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보기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 분만 주목하고 집중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발전시켜갈 수 있는 근거인 하나님의 인격성에 집중하도록 다방면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계기도는 이 사역을 돕는 아주

유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할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라는 것이다. 기도는 지루하고 답답하다! 정말 기도는 재미없고 밋밋한 신앙행위인가? <표10. 기도가 응답받지 못 하는 이유>에서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재미없는 기도는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게임이 아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해결받는 방법 이상의 것이다.

기도가 지루하고 답답한 것은 기도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기도의 과정에는 집중하지 않는 탓이다. 기도를 소원과 간구 중심으로 이해하는 한, 기도는 통과외레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말이다.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나 유효하다.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나마 그런 불편함을 감내 조차 하지 않으려 든다. 훈련이라는 이름도 소용이 없다. 심지어 간구할 기도제목도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의리나 은혜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도 아니다. 기도의 중심이 잘못 잡힌 탓이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사귄이라는 추에 모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추에 모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기도의 중심 추를 간구에서 만남으로 옮겨와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에 집중하는 기도로 그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더 이상 기도의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기도의 과정을 누리야 한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결코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힘든 마음을 꺼내놓고 울부짖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카타르시스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대를 만나 답답함을 해소받는 영원한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것이다. 관계기도는 하나님을 친구로 만나도록 돕는다. 관계기도는 하나님을 연인으로 만나도록 안내한다. 사실, 하나님은 친구나 연인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행복자체이시자 기쁨 자체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깊어질수록 즐겁고 행복한 최고의 만남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날, 무덤덤한 신앙이 생기를 얻고, 영향력을 잃은 말씀이 심령을 꿰뚫는 증언이 되며, 멈추었던 간증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한반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제 VII 장

결론

요약 및 평가

본 논문은 교회갱신을 위한 성경적인 관계기도에 대한 연구논문이다. 본인은 한국교회의 교인감소, 영적 침체, 사회적 질타, 내부적 혼란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극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 확인하고, 교회를 향한 시대의 도전적 요청을 숙고하여 지금의 기도현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 형태를 모색함으로써 개인적인 신앙갱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갱신과 나아가 신앙부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계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극대화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도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 본 논문의 결과물이다. 관계기도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관계기도란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하는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귄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기도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며,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증대되는 결과를 누리는 기도이다. 따라서 관계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는 교제 중심의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며, 단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現存)을 느끼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도이다. 관계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귄에 충실할 때, 현재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간구와 소원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부에 관련된다고 본다.

관계기도 훈련은 개인적인 신앙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 훈련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앙열정의 회복이라는 생동감을 불어넣어주었다. 훈련의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관계기도는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만남’ 중심의 기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관계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부각시켜줌으로서 기도가 비인격적인 힘과 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분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계기도 훈련은 그동안의 ‘간구와 소원’ 중심의 기도에서 찬양과 감사와 회개에 비중을 두는 ‘만남’ 중심의 기도로 넘어가는 데 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성도들에게 ‘간구와 소원’의 기도내용은 줄이고, 찬양과 감사와 고백의 기도내용은 늘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도전을 주었다.

둘째, 관계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와 ‘관계맺음’ 중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해 주었다. ‘나’ 중심 기도의 지향(指向)이 기도자인 ‘나’가 중심이요, 주인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조자요, 해결사

정도로 취급된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나’ 중심의 기도를 고쳐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와 은유적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듣는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덕분에 성도들이 말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직도 듣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 줄음을 이기지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떤었다고 본다.

셋째, 관계기도를 통하여 ‘언음’ 중심의 기도에서 ‘알아감’ 중심의 기도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강청하여 더 큰 복, 더 큰 재물, 더 큰 권력, 더 나은 능력과 기술, 더 좋은 건강을 얻어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를 통한 언음의 문제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음’의 기도대신 ‘알아감’의 기도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았다.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하였다.

넷째, 관계기도는 ‘성취’ 중심의 기도를 탈피하여 ‘누림’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게 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는 분인 줄 알면서도, 그저 내 문제의 해결자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공급자나 행복을 주는 성취 수단쯤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관계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훈련했다.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창조자요, 담지자요,

수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도한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과정에 집중하게 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격려하였다.

제언

래리 크랩(Larry Crabb)은 “기도의 목적은 관계다” 라고 선언하면서 기도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¹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기도만 그 목적이 관계인가? 아니다. 찬양의 목적도 그러하며, 예배의 목적도 그러하며, 봉사의 목적도, 선교의 목적도 그러하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신앙의 화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위에서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기도는 자기세뇌에 불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예배는 자기기만적 행위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찬양은 그저 노래일 뿐 찬양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선교는 종교를 빙자하는 인간적 야망의 표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봉사는 자기 의(義)의 축적이다. 본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게 한 동기와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었다. 본 논문의 연구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교회들은 전에 없던 내홍(內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내적 혼란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법정소송도 불사하는 이 싸움들은 얼마나 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게 할 것인가? 언제 성도답지 않은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하나님 없는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성도,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한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며 성도는 비로소 성도다워질

¹ Crabb, *파파기도*, 84.

것이다.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비록 신앙의 여러 가지 활동 중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갱신을 시도해 보았지만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활동,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두 번째로 관계기도를 통한 교회갱신과 관련하여 기도에 대한 선입견의 갱신을 요청하고 싶다. 그동안 한국교회에는 기도에 대한 2가지 평가의 잣대가 있었다. 소위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할 때, 말을 유창하게, 공감이가도록 기도하는 것을 기도 잘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잘 받아내는 사람을 소위 신령한 사람이라 하여 기도를 잘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관계 중심의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나온 판단 잣대들이다.

이러한 판단 잣대들은 기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직접적인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간구 중심의 기도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도록 동기부여하거나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함으로 기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매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를 문제가 생긴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부정적 시각까지 낳았다. 이는 간구 중심 기도의 능력은 문제해결의 응답으로 평가되기에 하나님의 응답이든 아니든 문제해결을 받지 못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를 안고 사는 불쌍한 자들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도응답을 잘 받는 신령한 기도자와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눈물의 기도자로 양분하는 극과 극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마음껏 기도하는 데 오히려 거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런 폐해는 지금도 한국교회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도 옛날의 기도 많이 하던 통성기도의 나라가 아니다. 각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며, 금요기도회가 사라지고 있고, 수요기도회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여기에 기도자에 대한 인식마저 ‘모’ 아니면 ‘도’ 라는 식의 판단 잣대로 재단하고 있으니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성도들도 기도자의 대열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뜨겁던 한국교회의 기도 열기를 떨구는 데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속히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만남 중심의 관계기도로 기도의 패러다임을 갱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전체를 하나하나 차분히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맘껏 기도하는 교회, 기도자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득한 나라가 되길 소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관계기도를 통한 교회갱신과 관련하여 기도 교육에 갱신을 요청하고 싶다. 한국교회는 왜 간구 중심의 ‘달라’ 는 식의 기도가 거의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었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간구 중심의 기도를 탈피하지 못 하는가? 관계기도를 연구하며 알게 된 것은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과 훈련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이 십여 년 전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얻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치와 논리로 환산되지 않는 영역도 나름 의미있는 영역으로 인정되었고, 기도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기연은 한국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지만 기도의 내용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 시간만 되면 청구서를 낭독하듯 무엇을 달라는 내용으로 일관하게 된 것²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한국교회 초기에 기도에 관한 좋은 자료들이 있었고, 좋은 기도의 모델들이 있었다면 정말 다른 기도문화가 자리 잡았을 것이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간구 중심의 기도를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만남 중심의 기도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기도 훈련을 받고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어릴 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을 자주 듣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다면 당연히 그들은 기도하면 관계기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기연은 한국교회에게 기도자들의 손에 좋은 기도문을 들려줄 것³을 요청한다. 좋은 기도문을 들고 따라 읽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 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에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라’로 기도 교육을 갱신하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초신자와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관계기도로 발전하고 성장해 갈 것이다.

² 조기연, *기도의 정석*, 11.

³ Ibid.

부록 I. 설문조사. 더 깊은 기도를 위하여

※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1. 신앙생활 몇 년 되었는가?

- 1) 5년이하 2) 10년 이하 3) 20년 이하 4) 30년 이상

2. 하루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1) 15분이하 2) 30분이하 3) 1시간 이하 4) 1시간 이상

3. 나의 전체 기도시간을 돌아볼 때, 감사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 1) 5%이하 2) 10%이하 3) 20%이하 4) 30%이하

4. 나의 전체 기도시간을 돌아볼 때, 회개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 1) 5%이하 2) 10%이하 3) 20%이하 4) 30%이하

5. 나의 전체 기도시간을 돌아볼 때, 간구와 소원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 1) 30%이상 2) 50%이상 3) 80%이상 4) 90%이상

6. 나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

- 1) 신앙 2) 건강 3) 물질 4) 자녀 5) 나라

7.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 1) 믿음이 약해서 2) 간절함이 부족해서 3) 때가 되지 않아서 4)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8. 나는 기도를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1) 문제해결의 통로 2) 영적인 호흡 3) 하나님과의 대화 4) 예수님 닮아가는길

9. 내가 기도할 때 떠올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 1) 친구 2) 힘과 능력 3) 자상한 할아버지 4) 연인

10.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 1) 믿음 2) 시간과 공간 3) 두려움과 죄송함 4) 지루함과 답답함

부록II. 관계기도를 통한 “만남” 기도회

찬양... 나 표현 못해도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기도... 우리의 모임을 위하여

강의... 간구보다 만남을 위하여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아담창조부터

공급품보다 공급자를 알기 원하신다.

손뜨게 생일선물보다 내 딸인 너가 내 선물이다.

기도의 5가지 요소, 아버지를 부름, 감사의 고백,

회개와 용서, 간구와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

간구와 소원 줄이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가?

아니면 만나자고 하는가?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계시록에서도 만나고 싶어하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날 좋아하는 사람, 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깝다.

내 기도가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자.

실제... 기도훈련

부록 III. 관계기도 훈련을 위한 강의 자료

강의자료 1. - 나의 목상, 나의 찬양기도 쓰기

다윗의 기도, 시편 34편 1-10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 나서 부른 다윗의 노래]

01.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02. 나의 자랑, 야훼께 있으니 비천한 자들아, 듣고 기뻐하여라.

03. 나와 함께 "야훼, 높으시도다." 노래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을 기리자.

04. 야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서리쳐지는 곤경에서 건져주셨다.

05.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06.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 들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셨다.

07. 야훼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

08.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되다.

09. 야훼의 거룩한 백성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아쉬울 것 없으리라.

10. 맹수들은 먹이 찾아 배고플지 모르나

야훼를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위 글을 묵상하고 나의 찬양기도를 써 봅시다.

강의자료 2. - 나의 기도, 나의 찬양기도 쓰기

언더우드님의 기도 낙서장 중에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는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위 글을 묵상하고 나의 찬양기도를 써 봅시다.

강의자료 3. - 나의 고백, 나의 신앙기도 쓰기

사도신경

01.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02.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3.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04.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05.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06. 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07.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08.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09.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10.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11.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12.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13.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의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나의 신앙기도를 써 봅시다.

강의자료 4. - 나의 목상, 나의 회개기도 쓰기

십계명

0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02. 너는 어떤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03. 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04.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05.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06.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07.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08.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09.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 너는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위의 십계명을 묵상하고 나의 회개기도를 써 봅시다.

부록IV. 관계기도에 대한 인터뷰

관계기도 훈련 후 기도를 통해 누렸던 기쁨들을 나누어 보았다.

김○○

기도할 때 이게 관계잖아요.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구○○

저 같은 경우에 이 기도를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남한테 말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읽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소통이 영과 영이 통한다는 게 있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치유가 되는 느낌, 그런 거를 경험하는데 안아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차○○

기도할 때에 정말 저는 얘기할 때는 조용조용 한데 이상하게 기도만 했다하면 목소리가 막 커지는 데...저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니까 ... 그게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막 크게 터져 나와요. 조그마하게 할래도 막 하나님은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막 보여 주시면 기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가운데에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게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관계기도인데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곳에서 만나서 기도할 적에는 정말 그 심령에 들어있는 어떤 것, 차마 남한테 얘기 못할 걸 얘기를 하나님께 다 내놓아가면서 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시간만큼은 안 빠지고 싶어요.

양○○

말씀 해주신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으면서 그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하면 그 상황이 느껴져요.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은혜받고, 치료되고 회복하고, 감사하고, ... 다른 기도처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기도가 안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축복해주는 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안아주는 기도로 나가고, 기도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었어요.

이○○

저는 기도 하게 되면 방언이 먼저 나와 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간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참고문헌

외국어서적

Arthur, George & Butt, Rick.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s.v. "prayer."*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Barth, Karl. *Evangelical Theology*. Trans. Grover Roley,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Bloesch, Donald G. *The Struggle of Prayer*. CO: Helmers & Howard Publishers, 1988.

Brown, Collin ed.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Dufour, Leon.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7.

Ellul, Jacques. *Prayer and Modern Man*. Trans. C. Edward Hopkin, New York: Seabury Press, 1970.

Forsyth, P. T. *The Soul of Prayer*. London: Independent Press, 1996.

Frost, Michael & Hirsch, Alan.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8.

Harris, R. Lair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1*. Chicago: Moody Press, 1980.

Jenkins, Daniel. *Prayer and the Service of God*. London: Faber & Faber, 1994.

Richardson, Ala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London: SCM Press Ltd, 1957.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s: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2000.

Taylor, Jack R. *Limitless Rea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77.

번역서적

Allmen, Jean-Jaques Von. *예배학원론*. 정용섭 외 역. 서울: 기독교출판사, 1969.

Baunds, E. M. *기도의 무장*. 한준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제 3권*. 김문제 역. 서울: 혜문사, 1984.

- Carson,D. A. *바울의 기도*. 윤종석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 Crabb,Larry. *파파기도*. 김성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 Evan B,Howard. *성경그대로 기도하기*. 채수범 역. 서울: 규장, 2014.
- Hallesby,O. *Prayer, 기도*. 임은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J. C,Ryle.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장호준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 Keller,Timothy, *팀 켈러의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서원, 2015.
- Ellul,Jacques. *우리의 기도*. 김치수 역. 서울: 대장간, 2015
- Nouwen,Henri J. *기도의 삶*.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0.
- Sweet,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은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6.
- Thomas H,Green. *하느님의 얼굴을 맞대고*. 한정옥 역. 서울: 바오로 딸, 2012.
- Torrey,Reuben A. *기도의 힘과 평안*. 김승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Wagner,Peter.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 Wesely, John. *웨슬리 총서 4*. 서울: 선교출판사, 1977.
- 라이츠만,부루스. *교회의 의미와 사명*.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1.
- 래드,G. E. *신약신학*. 신성중,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바레트,C. K. *국제성서주석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 블러쉬,도널드 G. *기도의 신학*. 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스나이더,하워드.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스나이더,하워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 스나이더,하워드.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정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웨버,R. E. *복음주의란 무엇인가?*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제이,E.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한스킹. *교회란 무엇인가?*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1.

한국어서적

- 강성열.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 김광률. *묵상과 기도훈련의 실제*. 서울: 스테반, 1995.

-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글방, 2002.
-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10.
-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김영한. *바르트에서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김충환.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II, s.v. "Church Dogmatics," by Karl Barth*.
- 나점일. *새벽기도와 교회성장*. 서울: 도서출판 샘물, 1993.
-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류기종. *기독교 영성*. 서울: 열림출판사, 1994.
- 리재학. *DTP 교리강해연구 5*. 서울: 선린출판사, 1990.
- 박은규. *기도의 신학과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신동우. *선교학*. 서울: 예루살렘, 1993.
-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99.
- 유해룡. *예수님과 사귀라*. 서울: 두란노서원, 2012.
- 윤철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3.
- 이성호. *6000예화사전*. 서울: 혜문사, 1962.
-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정기석. *기도응답의 열쇠*. 서울: 혜선출판사, 1984.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 조기연. *기도의 정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5.
- 지원용. *예배 의식문 해설*. 서울: 컨콜디아사, 1965.
- 한미라. *디지털 환경과 복음*. 천안: 호서대학교출판부, 2002.
- 편집부. *성서백과 대사전*.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80.

논문,잡지

- 김창인. “성서연구 중심의 소그룹 형성을 통한 교회조직 갱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7.
- 김홍정. “철야기도가 교회갱신에 미치는 영향: 서문교회의 철야기도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02.
- 박위근. “교회 갱신의 과제와 그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Fuller신학교 공동, 1987.
- 백장흠. “교회갱신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7.
- 송성용. “영적 열정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의 효과분석: 대전 호산나성결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03.
- 안양선. “소그룹을 통한 교회갱신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 이계준, “교회갱신과 복음 선교” 1,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1981.
- 이신건.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성장” 7, *목회와신학*. 1990, 40-48.
- 장자천. “기도가 목회사역에 끼치는 영향”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 공동학위과정, 1985.
- 지원상, “마틴 루터의 기도론”, *기도*, 제 282호, 1987, 15-24.
- 황영철, “교회의 올바른 역할에 관한 연구: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신학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1999.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KiwnaKim

Place and Date of Birth: Chuncheon, Gangwondo, South Korea, April. 15, 1970.

Parent`s Names: Shangha Kim and Younggil Sin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ungsu High School 21, Jungang-ro 68beon-gil, Chuncheon-si, Gangwon-do,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89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B.A.	Feb. 12, 1998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M. Div.	Feb. 03, 2005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iwanKim

Name typed

May 6, 2017

Date